

I. 서론

1. 연구목적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청소년폭력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이루어져 오고 있을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폭력문제가 발생한 후에는 사후대처를 적절히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대책들을 분석해 보면 한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사전예방이나 사후대책 모두 관심의 초점이 피해자에 맞춰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인 비행소년에 대해서는 치료나 치우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는 단속과 처벌 위주의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된다. 폭력으로부터의 청소년의 보호와 피해 청소년에 대한 구제는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에만 치중하는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폭력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을 단순히 범죄자로 취급하여 단죄하려고만 하는 것은 보다 근본적인 청소년폭력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선도는 피해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이들도 올바르게 성장해야 할 똑같은 우리의 청소년들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피해청소년은 보호하고 가해자인 비행소년은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은 피해청소년과 가해청소년을 대립하는 집단으로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에 의한 것으로써 청소년집단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구제에 치중하는 대책은 그 효과성이나 비용 면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치료나 치우에 비해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 비행소년의 수는 피해청소년이나 전체청소년의 수에 비하면 소수이

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비행 예방 및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면 경제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볼 가능성이 높다¹⁾.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폭력대책에 있어서 사전예방이나 피해자의 보호, 가해자인 비행소년에 대한 처벌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선도대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최근의 정부 대책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조금씩 반영되는 움직임을 볼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사후관리제도와 멘터프로그램(mentor program)이 그것이다. 사후관리제도는 소년부에 송치된 소년들에 대해 선도보호위원과의 결연을 통해 집단활동, 여가선용 등의 선도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우수청소년을 표창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멘터프로그램은 청소년들과 연령차가 크지 않은 대학생들을 결연시켜 자연스럽게 선도효과를 거두고자 하는 제도로써 1998년 6월부터 한양대학교 대학생과 서울 동부지청의 선도조건부기소유예 청소년들의 결연이 이루어지고 있다²⁾.

이러한 제도들이 보다 활성화되고 폭력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비행소년들에게 그들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처우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하는 개별화원리는 행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원리로서 이는 폭력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

- 1) 또한 학교주변 청소년폭력의 실태를 조사해 피해집단과 가해집단의 유형을 분류해 분석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에서는 폭력의 가해는 비교적 사회화 요인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피해는 상대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예방은 피해를 중심으로 한다가 보다는 가해 유발요인, 특히 피해와 가해가 중층적으로 발생하게 만드는 사회적 요인과 계기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194-201).
- 2) 이 프로그램은 매우 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현재는 집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원조달 및 대학생 멘터와 범죄예방위원 간의 협조의 어려움으로 인해 중단상태에 있다(오영근, 1999: 21).

되는 원리일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별화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청소년폭력 관련연구들은 주로 청소년 전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전반적인 피해실태와 가해실태를 파악해 왔기 때문에 가해자인 소년의 특성이나 가해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보다 폭넓은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상으로 실증적인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폭력비행을 저질러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필요성에 따라 연구목적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폭력비행을 저지른 보호관찰 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 및 정황 등 폭력비행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해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폭력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둘째, 폭력비행을 저지른 보호관찰 소년들의 성격 및 환경 등 그들을 둘러싼 제반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들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이 연구는 폭력비행을 저질러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폭력 가해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폭력비행 실태와 그들을 둘러싼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폭력의 대책모색과 동시에 이들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폭력 가해자들의 자기보고를 통해 폭력가해의 실태

와 원인을 파악한다.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 및 정황, 가해장소, 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다.

둘째, 청소년폭력 가해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학교·사회의 환경적 요인들을 파악한다.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수준 등 가정 환경과 학업성적, 또래집단, 교사의 체벌 등 학교환경, 유해환경 접촉 등의 사회환경을 분석한다.

셋째, 청소년폭력 가해자들의 욕구와 의견을 파악한다. 여가생활 및 가정·학교·사회환경의 개선에 대한 욕구를 분석하고, 청소년폭력의 실태에 대한 인지도와 대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본다.

넷째, 청소년폭력대책과 폭력가해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보호관찰중인 청소년폭력 가해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처우의 방향을 제시한다.

이 연구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청소년폭력 가해자란 단순한 폭력사범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청소년들을 지칭한다. 연구의 편의상 이러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특히 보호관찰 처분을 받고있는 청소년만으로 범위를 제한하고자 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면접조사, 전문가자문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³⁾.

3) 설문조사와 면접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각각 제3장과 제4장에서 기술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폭력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비행소년들에 대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청소년폭력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알아보고, 더 나아가 이들 비행소년의 제반특성을 파악함으로써 그들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배경으로는 청소년폭력 및 처우의 개별화에 관해 간단히 논의해 보고자 한다.

1. 청소년폭력에 관한 논의

먼저 청소년폭력과 관련해서는 폭력의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폭력이란 불법 부당한 방법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유형에 따라 대체로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도구로 사용하는 도구적 폭력과 분노나 공포, 좌절 등이 행동으로 표출된 표현적 폭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한편 타인을 괴롭힘으로써 즐거움이나 뭔가를 얻고자 하는 공격적 폭력과 이러한 공격에 맞서기 위한 방어적 폭력으로 분류할 수 있다(Jenkins & Gowdey, 1981: 3).

청소년폭력에는 이들 여러 가지 유형의 폭력이 혼재되어 나타나게 되는데, Olweus는 청소년폭력의 개념을 정의내림에 있어 ‘반복적 그리고 지속적’인 폭력에의 노출을 강조하면서 폭력의 유형에는 위협, 조롱, 때림, 말로 참, 들볶음, 꼬집음, 따돌림 등 물리적이거나 비물리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다(Dan Olweus, 1996: 22-24). 한편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청소년폭력 개념들을 종합·정리하여 “청소년폭력은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생리적, 환경적 성장과정에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인과 대물에 관계없이 힘의 불균형 상황에서 발생하는 언어적, 심리적, 물리적 폭력을 말한다”라고 정의내린 바 있다(이

민희 · 이명숙 · 정희옥 · 이춘화, 1998: 51).

2. 처우의 개별화에 관한 논의

다음으로 처우의 개별화란 범죄자 한사람 한사람이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인격체이며 또한 범죄의 원인도 다양하므로 범죄자에 대한 처우를 유효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개의 범죄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가장 적합한 처우를 행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개별화의 원리가 행형의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배원리라 함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지적한 바 있다. 개별화-개별예방의 사상은 모든 형태의 국가의 제재 체계에 저촉되어 있으며 행위자의 인격 및 성격에 따라 처우의 성격, 정도, 기간을 달리하는 다양한 행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행형시설의 획일성을 벗어나야 하며 행형의 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형자의 분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행형시설과 행형형태의 다양화를 이룸으로써 각각의 수형자의 상태에 적절한 시설설치 및 행형구현이 이룩되기 때문이다. 행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행형이 다양화의 이름아래 추구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양화’와 ‘분류’라는 말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수형자를 처우와 구금의 관점에서 각각 그룹화하여 유사한 수형자들은 유사한 행형조건 아래에 처우하여 재사회화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의미이다(조준현, 1989: 2-3).

이와 같이 범죄자에게 개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적인 정책은 법률을 위반한 자에게 획일적인 형벌을 과하는 실무에 반대한 실증주의 학파의 논의에서 발달하게 되었다. 이것은 획일적인 형벌에 대해 무슨 질병인지 어떤 환자인지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이 명백히 효과가 없다는 이론이다. 이들은 형벌의 종류와 무게는 개개의 범죄인에게 적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平野龍一, 1984: 66). 이러한 ‘처우의 개별

화’ 이념은 19세기에 있어서 형법 개혁의 주요한 원천의 한가지인 형벌의 개별화의 운동 중에 나타나게 되었고, 19세기 후반 실증주의의 주장에 자극된 20세기에는 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보안처분 및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이 처우의 체계에 도입되기에 이르렀고 처우의 개별화 내지 제사회화의 개별화된 처우의 문제가 범죄자 처우의 중심적 과제가 되기에 이르렀다. 그것에는 판사가 범죄자의 인격에 적합한 형사재판을 선택, 결정하는 점에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교정처우 단계에서의 개별화에도 중요한 의의가 발견된 것이다. 이러한 개별화의 관념의 발전에는 미국 교정에 있어서 분류라고 하는 사고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다(森下忠, 1988: 48-50).

처우의 개별화는 범죄자 처우의 각각의 단계에서 생각할 수 있다. 살리에르(R. Saleilles)는 그의 저서 ‘형벌의 개별화’에서 개별화의 단계를 법률상의 개별화, 재판상의 개별화 및 행정상의 개별화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법률상의 개별화는 사전에 주된 행위면을 기준으로 하여 구성요건의 세분화, 형의 가중·감경 등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개별화는 19세기가 끝날 쯤부터 여러 나라에서 채용해 온 형의 집행유예, 가석방, 누범가중 등에 관한 형사정책 규정의 도입에 의해 다채로운 내용을 가지는 것으로 되었다. 재판상의 개별화는 형사절차에 있어서의 사법적 개별화로써 주로 판사가 범죄인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행하는 형사제재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구현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상의 개별화는 교정처우 및 보호적 처우의 단계로써 행정기관에서 행해지는 것을 말한다(위의 책: 17-20). 이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는 바로 이 행정상의 개별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소년은 일반적으로 미성숙하고 장래성이 있으며 교정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비행소년의 처리, 절차에 있어서는 죄명, 사안의 경중, 죄질 등에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비행소년의 성격, 연령, 환경, 범죄적 위험성, 사회현실에 대한 적응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그 교화·

개선의 수단으로써 어떠한 처우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처우의 개별화가 특히 요망된다(신희구, 1985: 106). 이에 최근에 이르러 비행소년에 대한 처우의 개별화는 소년법제 연구의 주요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Palmer는 소년보호관찰의 처우와 관련하여 “상이한 소년들에게 상이한 처우”를 주장하였다. 어떤 유형의 소년들에게는 집중적인 치료가 더 적절하고 또 다른 유형의 소년들에게는 오히려 집단적인 처우가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집중적인 치료가 어떤 류의 소년들에게는 부적절하고 비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최인섭 · 진수명 · 김영진, 1993: 69, 재인용). 법무부 관찰과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분류지도지침’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 1996년 12월에 개정된 현행 지침을 살펴보면 보호관찰대상자를 재범위험성을 기준으로 3단계로 구분해 처우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기준은 보호관찰 소년 개인의 특성에 맞는 처우라는 측면에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보호관찰 시책이 시사점이 있다고 보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1976년 이래 보호관찰제도에서의 처우의 개별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마련해 오고 있는데, 1989년에 이르러서는 이제까지 다년간 이루어진 처우실적에 의해 제시된 제유형에 대한 배려사항에 관해서 정리 통합해, 보호관찰 유형별 처우제도가 실시되었다. 그의 기본적인 생각은 개별처우를 염두에 두고, 보호관찰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성과 그 밖의 특성, 그의 범죄·비행의 태양, 환경조건 등에 따라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특성에 초점을 둔 처우지침 등을 참고로 하여 처우계획을 책정하고, 획일적이 아닌 탄력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는 것이다. 유형의 종류는 신나 등 활용자, 각성제사범대상자, 폭력조직관계자, 성범죄자, 중학생, 무직소년, 가정내폭력, 교내폭력, 폭주족, 정신장애자, 무기형대상자의 11개 유형이다(清水和夫, 1999: 184-186).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교내폭력을 개별처우의 한 유형으로 독립해 놓고 있다.

III.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1) 주요 변인의 측정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는 폭력가해의 구체적인 경험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이 얼마나 폭력적인가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 중에서도 가장 밀접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래관계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는 청소년폭력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폭력가해 경험

폭력가해 경험은 지금까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던 폭력사건 중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보았다. 사건 당시의 나이, 장소, 상대방, 면식여부, 상대방에 대한 지금의 심정, 공범, 사건 발생 이유, 사건발각 이유 등을 질문함으로써 가해자 측면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2) 개인적 · 환경적 특성

가. 개인특성

개인적 특성으로는 공격적인 성격특성과 폭력의식, 폭력 이외의 비행 경험에 관해 알아보았다.

가) 공격성

얼마나 공격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노치영

(1988) 및 양윤정(1993)의 논문에서 사용한 변인들 중 5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표 III-1> 공격성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나는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남과 다투거나 욕을 한다	.720	.518
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곧잘 다투는 일이 많다	.717	.514
나는 나를 해치는 사람에게는 꼭 양갓음을 한다	.687	.473
나는 화가 나면 물건을 집어던지고 싶다	.670	.449
나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못살게 군다	.651	.424
	2.378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가 신뢰할 만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는데, Cronbach's Alpha(α)값이 .71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폭력의식

폭력행동에 대해 얼마나 허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하여 김준호, 김선애(1992) 및 이춘화(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중 4가지를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는데, Cronbach's Alpha(α)값이 .71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폭력허용의식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835	.698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762	.581
법으로 해결 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704	.496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데는 폭력이 대화보다 낫다	.629	.395
	2.170	

다) 비행경험

폭력비행 이외에 어떠한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무단결석, 가출, 오토바이 훔쳐타기, 무면허운전, 돈이나 물건훔치기, 성추행이나 성폭행의 6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한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 일은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나. 가정환경

가정환경으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가정내의 폭력적 분위기를 알아보았다.

가)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경제적 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모님이 친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정인지 한쪽이라도 결손된 가정인지 여부와 부모의 학력,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을 질문하였다.

나) 폭력적 가정분위기

가정환경이 폭력적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1997) 및 황성숙(1998)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을 참고하여 재구성한 4가지 변인을 제시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

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 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바, Cronbach's Alpha(α)값이 .72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 폭력적 가정분위기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우리집 형제자매는 서로 싸우거나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다	.818	.669
우리집 형제자매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나를 심하게 때린다	.812	.659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나를 심하게 때린다	.747	.558
우리 부모님은 서로 싸우거나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다	.635	.403
	2.289	

다. 학교환경

학교환경으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을 알아보았다.

가)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1991) 및 이춘화(1995)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인들 4가지를 제시하고 1년 동안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당했는지 “전혀 없음”,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는데, Cronbach's Alpha(α)값이 .81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갑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헐박당한 적이 있다	.850	.722
맞아서 몸이 멍들거나 상처가 난 적이 있다	.793	.630
강제로 물건이나 돈을 뺏긴 적이 있다	.789	.623
심한 욕이나 저주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779	.607
	2.582	

나)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

교사로부터 체벌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박용욱(1999)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체벌유형들을 참고하여 구성된 4가지 변인을 제시하고 1년동안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당했는지 “전혀 없음”,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표 III-5>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손으로 뺨이나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	.885	.783
출석부나 책으로 맞은 적이 있다	.859	.739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824	.680
몽둥이로 맞은 적이 있다	.779	.607
	2.808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바, Cronbach's Alpha(α)값이 .85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유해환경

유해환경 접촉과 관련해서는 유해약물, 유해매체, 유해업소 접촉도를 알아보았다.

가) 유해약물 접촉

유해약물 접촉도를 측정하기 위해 “친구와 술마시기”, “본드나 가스, 환각제 사용”을 제시하고 한달 동안 이러한 일들을 몇번 정도 하는지 “전혀 없음”,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또한 하루에 피는 담배량을 “안피움”, “1-2개피”, “3-4개피”, “한갑”, “한갑 이상”으로 나누어 질문하였다.

나) 유해매체 접촉

유해매체 접촉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란매체 접촉을 알아보기 위해 “음란비디오 보기”를 한달 동안 몇번 정도 하는지 “전혀 없음”,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한편 폭력매체 접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을 참고하여 3가지 변인을 제시하고 한달 동안 이러한 매체들을 몇번 정도 접촉하는지 “전혀 없음”,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했는데, Cronbach's Alpha(α)값이 .79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폭력적인 매체접촉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	.893	.798
구체적인 범죄방법 묘사	.825	.680
수준낮은 말이나 욕	.813	.661
	2.140	

다) 유해업소 접촉

유해업소 접촉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란주점, 카페 등 출입”, “디스코텍 출입”, “유해업소에서 일하기”를 제시하고 한달 동안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했는지 “전혀 없음”,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바, Cronbach's Alpha(α)값이 .68로 나타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7> 유해업소 출입·고용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단란주점, 카페 등 출입	.759	.611
디스코텍 출입	.732	.625
유해업소에서 일하기	.660	.557
	2.477	

(3) 또래관계

또래관계에 관해서는 친구관계,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와의 관계, 폭력 썬클관계를 알아보았다.

가. 친구관계

먼저 일반적인 친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친한 친구 중에 비행성이 있는 친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김준호, 박미성(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비행유형과 척도를 참고하여 6가지 변인을 제시하고 친한 친구들 중에 이러한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되는지 “없음”, “¼정도”, “절반정도”, “¾정도”, “거의 다”의 5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요인분석 결과 하나의 요인으로 검출되어, 이들 변인을 모두 합해 하나의 복합척도를 구성하였

다. 이 척도에 대해 신뢰도 검증을 실시한 바, Cronbach's Alpha(α)값이 .81로 매우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8> 비행친구관계에 관한 요인분석

	요인1	공통성
가출	.755	.570
오토바이 폭주	.752	.565
돈이나 물건 훔치기	.748	.560
돈이나 물건 훔치기	.732	.536
다른 사람 폭행하기	.709	.502
본드, 가스, 환각제 사용	.682	.465
	3.198	

나. 폭력가해집단

청소년 폭력비행의 집단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폭력씨클에 관해 몇 가지를 질문해 보았다. 문항들은 김준호, 노성호, 곽대경(1993)의 연구를 참고해 구성하였다.

먼저 일진회 등의 폭력씨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고, 현재 가입하고 있거나 가입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또한 폭력씨클에 들어 있는 것이 실제 폭력행동을 하는 것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도 알아보았다.

한편 이러한 폭력씨클에서는 비행활동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비행유형 7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한달 동안 이러한 일들을 몇번 정도 하는지 “전혀 없음”, “한두번”, “서너번”, “다섯번 이상”의 4점 척도를 사용해 알아보았다.

(4) 청소년폭력에 대한 의견

청소년폭력에 대한 의견으로는 청소년폭력 발생실태에 대한 인식도

와 대책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학교폭력 발생 인식도는 “전혀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대책에 관해서는 폭력사건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해 알아낸 대책에 관한 의견들을 중심으로 15가지를 제시하고 청소년 폭력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두 고르도록 하였다.

2) 조사과정 및 자료분석 방법

이 연구를 위해 서울보호관찰소와 수원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청소년을 표집대상으로 각 260명씩 총 520명을 표집하였다. 설문조사 기간은 1999년 9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이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515부였다. 이 중 신뢰성이 낮다고 판정된 자료 3부를 제외한 512부에 대하여 SPSS/WIN(ver. 7.5)을 사용하여 전산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질문항목들이 타당하게 구성된 문항들인지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factor analysis)과 신뢰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빈도분석(frequency)과 교차분석(crosstabulation), t검증(t-test)을 실시하였다.

3) 조사대상자의 특성

이 조사에서 표집한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먼저 폭력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대상자에게 누군가를 폭행하거나 금품갈취, 협박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보아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을 구분해 보았다. 그 결과 폭력비행경험이 없는 청소년이 47.7%, 있는 청소년이 52.3%로 나타났다.

<표 III-9> 조사대상자의 특성

(단위: %, (명))

변 인		폭력비행경험 없는 청소년	폭력비행경험 있는 청소년	전 체
전 체		47.7(244)	52.3(268)	100.0(512)
평균연령		17.22세	17.18세	17.2 세
성 별	남 자	93.9(229)	89.6(240)	91.6(469)
	여 자	6.1(15)	10.4(28)	8.4(43)
신 분	중학생	14.2(33)	9.6(25)	11.7(58)
	인문계고등학생	13.7(32)	4.6(38)	14.2(70)
	실업계고등학생	25.8(60)	27.2(71)	26.5(131)
	직장인	22.3(52)	23.8(62)	23.1(114)
	무 직	24.0(56)	24.9(65)	24.5(121)
소 속 보호관찰소	서 울	53.5(130)	48.1(129)	50.6(259)
	수 원	46.7(114)	51.9(139)	49.4(253)

연령은 평균 17.2세이며, 성별분포는 남자 91.6%, 여자 8.4%로써 대부분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신분은 중학생이 11.7%, 인문계 고등학생이 14.2%, 실업계 고등학생이 26.5%, 직장인 23.1%, 무직 24.5%이며, 소속 보호관찰소는 서울이 50.6%, 수원이 49.4%이다.

2. 폭력가해 경험

1) 사건정황

자신이 저지른 폭력사건 중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았던 가장 최근의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정황을 알아보았는데, 먼저 사건 당시의 나이는 평균 16.37세였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주택가가 50.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유흥가 27.3%, 학교주변 18.2%, 학교 내는 4.3%로 가장 적었다. 실제로 청소년폭력이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응답은 학교안이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안이 법적

인 처벌을 받기에 다소 경미하거나 혹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추를 해보게 한다.

<표 III-10> 폭력가해 장소

구 분	학교 내	학교주변	주택가	유흥가	전 체
백분율(%)	4.3	18.2	50.2	27.3	100.0
빈도(명)	9	38	105	57	209

<표 III-11> 공범

구 분	없 음	1-2명	3-4명	5명이상	전 체
백분율(%)	13.0	37.0	25.9	24.1	100.0
빈 도 (명)	28	80	56	52	216

폭력비행을 저지를 당시 공범은 1-2명인 경우가 37.0%로 가장 많았고, 5명 이상인 경우도 24.1%로 적지 않았고, 혼자한 경우는 13.0%에 그쳐 학교폭력이 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2) 피해자

폭력피해를 준 상대방은 학생인 경우가 61.0%로 가장 많고, 학생이 아닌 미성년자가 14.6%, 성인인 경우도 24.4%이다. 이들 상대방에 대해 평소 아는 사이인 경우는 28.0%이고, 대부분(72.0%)은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조사에서 금품갈취의 경우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당한 경우가 69.0%인 반면, 신체적 폭력은 9.0%에 그친 선행연구(김준호·박정선·김은경, 1997: 114, 123)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폭력비행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는 대부분 금품갈취가 수반된 경우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방에 대한 현재의 심정은 피해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80.5%로 가장 많아 보호관찰을 받는 과정에서 심경의 변화가 왔거나 설문응답을 보호관찰관이 보게 될 것에 신경을 쓴 것이 아

닌가 생각된다.

<표 III-12> 가해대상

구 분	학 생	학생 아닌 미성년자	성 인	전 체
백분율 (%)	61.0	14.6	24.4	100.0
빈 도 (명)	125	30	50	205

<표 III-13> 면식여부

구 분	아 는 사 람	모르는 사람	전 체
백분율 (%)	28.0	72.0	100.0
빈 도 (명)	60	154	214

<표 III-14> 상대에 대한 현재 생각

구 분	피해준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	담담함	신고해서 미워함	복수하고 싶지만 처벌이 두려워 참고있음	다시 만나면 복수 하겠음	전 체
백분율(%)	80.5	13.5	1.4	3.7	0.9	100.0
빈 도(명)	173	29	3	8	2	215

3) 원인과 결과

폭력비행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는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라는 응답이 34.3%로 가장 많았고, ‘상대가 평소 미운 행동을 해서’라는 응답도 16.9%로 나타나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돈이 필요해서’가 30.4%, ‘내 성질을 참지 못해서’가 18.4%였다.

<표 III-15> 사건발생 원인

구 분	돈이 필요해서	상대가 평소 미운 행동을 해서	상대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내 성질을 참지 못해서	전 체
백분율(%)	30.4	16.9	34.3	18.4	100.0
빈 도 (명)	63	35	71	38	207

사건이 발각된 이유는 피해자의 신고가 57.8%로 가장 많고, 주변인의 신고가 28.0%, 순찰중인 경찰에 의한 것이 8.5%의 순으로 나타나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16> 사건발각 원인

구 분	피해자 신고	주변인 신고	순찰중인 경찰	기 타	전 체
백분율(%)	57.8	28.0	8.5	5.7	100.0
빈 도(명)	122	59	18	12	211

3. 개인적 · 환경적 특성

1) 개인특성

(1) 공격성

개인적인 특성으로써 공격성 면에서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없는 청소년에 비해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 5-25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96, 없는 청소년은 8.80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표 III-17> 공격성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8.80	3.00	237	t = -7.51 p = .000
있 음	10.96	3.38	262	

(2) 폭력의식

폭력에 대한 의식에 있어서도 폭력비행 경험에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폭력에 대한 허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위 4-20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14, 없는 청소년은 7.81로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폭력실태를 조사해 그 중 폭력가해 경험과 폭력에 대한 의식과의 관계를 분석한 이춘화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⁴⁾.

<표 III-18> 폭력의식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7.81	2.89	241	t = -4.89 p = .000
있 음	9.14	3.22	265	

그러나 이상 두 가지 연구는 집단간의 차이만을 분석하고 있어 폭력비행의 경험이 폭력을 허용하는 의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이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LISREL을 사용해 분석한 한 선행연구(Menard & Huizinga, 1994 : 24)에 따르면 의식이 행동에 영향을 준다

4) 이 연구에서는 폭력가해 경험이 많은 집단일수록 폭력사용에 대해 덜 거부하고 있고, 그 효용성은 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춘화, 1995 : 74)

기 보다는 행동이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폭력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폭력에 대해 더 허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생각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분석된다.

(3) 비행경험

청소년의 비행경험 여부는 폭력경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선행연구(김준호 외 3인, 1991 : 32; Sommers & Baskin, 1994 : 479; Salts et al, 1995 : 386)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에서도 몇 가지 비행경험을 조사해 보았다.

이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폭력비행과 몇가지 유형의 비행이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단결석, 가출, 무면허운전, 돈이나 물건 훔치기에 있어서는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이들 비행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오토바이 훔쳐타기나 성관련 비행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표 III-19> 비행경험

(단위 : %, (명))

폭력비행경험	무단결 ***	가출 *	오토바이 훔쳐타기	무면허 운전 *	돈·물건 훔치기 **	성추행 성폭행
없 음	50.0 (122)	46.3 (113)	18.4 (45)	21.3 (52)	25.4 (62)	2.0 (5)
있 음	66.4 (178)	56.3 (151)	20.5 (55)	30.2 (81)	36.6 (98)	2.2 (6)

* P < .05 ** P < .01 *** P < .001

2) 가정환경

(1)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어 먼저 가족구조면에서는 양집단 모두 결손가정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나(폭력비행 있는 청소년 30.4%, 없는 청소년 31.4%) 두 집단간에 통계적 차이는 없었고, 부모의 학력면에서는 부모 모두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의 학력이 높게 나타났으나 이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가족의 월평균 소득에 있어서도 폭력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의

<표 III-20> 가족구조

(단위 = %, 명)

폭력비행경험	일반가정	결손가정	사례수	통계치
없 음	68.6	31.4	242	$\chi^2 = .057$
있 음	69.6	30.4	263	$p = .443$

<표 III-21> 아버지 학력

(단위 = %, 명)

폭력비행경험	초등학교졸업 이하	중 졸	고 졸	대 졸	사례수	통계치
없 음	18.0	18.9	54.2	9.0	212	$\chi^2 = 5.88$
있 음	17.4	21.5	46.6	14.6	247	$p = .208$

<표 III-22> 어머니 학력

(단위 = %, 명)

폭력비행경험	초등학교졸업 이하	중 졸	고 졸	대 졸	사례수	통계치
없 음	16.6	28.0	52.6	2.8	211	$\chi^2 = 7.05$
있 음	19.9	27.7	45.5	6.9	231	$p = .133$

소득이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과적으로 폭력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 간에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표 III-23> 가족의 월평균 소득

(단위 = %, 명)

폭력비행경험	50만원 이하	50~100만원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사례수	통계치
없 음	5.4	34.1	44.4	10.3	5.8	223	$\chi^2 = 3.88$
있 음	4.9	29.6	43.3	16.2	6.1	247	$p = .422$

(2) 가정분위기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달리 폭력사용과 관련된 가정의 분위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크게 유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폭력적 가정분위기 면에서 범위 4-20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29이고, 없는 청소년은 5.00으로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의 가정분위기가 더 폭력적임을 알 수 있다.

<표 III-24> 폭력적 가정분위기

(단위 :%, (명))

폭력비행경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5.00	1.80	241	$t = -1.75$
있 음	5.29	2.01	262	$p = .080$

<표 III-25>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

(단위 :%, (명))

폭력비행경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1.68	1.23	244	$t = -4.67$
있 음	1.91	1.41	268	$p = .000$

특히 부모로부터의 체벌경험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총점 4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에 있는 청소년은 1.91인 반면 없는 청소년은 1.68로써 폭력비행 경험에 있는 청소년 집단이 부모로부터 더 많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환경

(1) 학교폭력 피해경험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에 있어서는 범위 4-20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에 있는 청소년은 5.21의 피해를 당한 반면, 없는 청소년은 5.03으로 나타나 다른 청소년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청소년들이 당한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결국 두 비행집단 모두 1년에 한두번 정도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폭력피해와 가해가 중첩된다고 하는 선행연구(이춘화, 1995 : 60-63; 김준호, 1997 : 194-201)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표 III-26> 학교폭력 피해경험

(단위 :%, (명))

폭력비행경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음	5.03	1.91	239	t = -1.01 p = .309
있음	5.21	2.11	265	

<표 III-27> 집단따돌림 피해경험

(단위 :%, (명))

폭력비행경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음	1.06	.32	241	t = -.193 p = .847
있음	1.05	.28	265	

그러나 최근 새롭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에 대해서는 총점 4

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05, 없는 청소년은 1.06으로 두 집단 모두 거의 피해를 당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사의 체벌경험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에 있어서는 집단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범위 4-20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91이고, 없는 청소년은 8.10으로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이 교사로부터 더 많이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8> 교사로부터의 체벌경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8.10	3.49	242	t = -5.51 p = .000
있 음	9.91	3.88	265	

4) 유해환경

(1) 유해약물 접촉

유해약물 접촉은 음주, 흡연, 본드·가스·환각제 사용의 세가지로 나누어 조사했는데, 본드·가스·환각제의 경우는 사용한 경우가 거의 없어 집단간 차이도 드러나지 않았으나 음주와 흡연에 있어서는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에 비해 술을 더 많이 마시고 담배를 더 많이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음주경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2.04	.86	243	t = -4.18 p = .000
있 음	2.39	.99	267	

<표 III-30> 흡연경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2.62	1.10	234	t = -2.89 p = .004
있 음	2.90	1.08	265	

<표 III-31> 약물경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1.03	.20	243	t = -.76 p = .442
있 음	1.05	.28	263	

(2) 유해매체 접촉

포르노비디오와 폭력적인 내용의 매체 접촉에 있어서는 모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32> 음란비디오 접촉경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1.22	.44	240	t = -3.41 p = .001
있 음	1.40	.71	263	

<표 III-33> 폭력매체 접촉경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4.62	1.95	243	t = -3.92 p = .000
있 음	5.38	2.35	267	

먼저 포르노비디오 접촉에 있어서는 총점 4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에 있는 청소년이 1.40, 없는 청소년이 1.22로 나타났고, 폭력적인 내용의 매체접촉에 있어서는 범위 3-12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38인 반면 없는 청소년은 4.62로 나타나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음란물과 폭력물을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유해업소 접촉

유해업소 출입경험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범위 3-12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3.97, 없는 청소년은 3.64로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이 유해업소를 더 많이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유해업소 출입 · 고용경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3.64	1.31	243	t = -2.58 p = .010
있 음	3.97	1.54	261	

4. 또래관계

1) 친구관계

친한 친구의 수에 있어서는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나 없는 청소년 모두 대체로 3-4명 정도로써 집단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친한 친구 중에서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있어서는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범위 6-30에 대해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9.52인 반면 없는 청소년은 7.94로 큰 차이가 있었다. 이것은 대체로 보면 두 집단 모두 친구 중에 ¼정도가 비행경험이 있다고 보고한 것이다.

김준호 · 박미성의 연구(1993; 138)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을 친구로 가

지고 있는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비행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단결석, 폭행, 패싸움, 절도, 금품갈취, 약물사용 면에서 모두 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히 패싸움과 가장 많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표 III-35> 친구 수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2.98	1.05	243	t = -1.503 p = .133
있 음	3.12	1.00	267	

<표 III-36> 비행친구

(단위 :%, (명))

폭 력 비 행 경 험	평 균	표준편차	사례수	통계치
없 음	7.94	2.48	242	t = -5.26 p = .000
있 음	9.52	4.03	266	

2) 폭력가해집단

(1) 폭력가해집단의 특성

조사대상 청소년 중에서 일진회 등의 폭력씨클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4.0%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없는 청소년 간에 매우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가입경험률은 32.3%인 반면, 없는 청소년은 14.9%로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청소년의 폭력행동이 폭력씨클 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폭력씨클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가입이유를 알아보았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로써 56.4%를 차지했고, 다음은 '기죽지 않거나 가입자가 멋있어 보여서'가 각각 10.3%, '경제적 도움'이 3.4%의 순이다.

<표 III-37> 폭력써클 가입경험

(단위 = %, 명)

폭력비행경험	가입한 적 없음	과거에 가입경험 있음	현재 가입해 있음	사례수	통계치
전 체	76.0	23.0	1.0	508	$\chi^2 = 21.34$ $p = .000$
없 음	85.1	14.5	0.4	242	
있 음	67.7	30.8	1.5	266	

<표 III-38> 폭력써클 가입이유

구 분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서	다른 애들에게 기죽거나 맞지 않기 위해서	가입자들 이 멋있어 보여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 타	전 체
백분율 (%)	56.4	10.3	10.3	3.4	19.7	100.0
빈도 (명)	66	12	12	4	23	123

<표 III-39> 폭력써클과 폭력비행의 관련성

구 분	전혀 관련 없음	별로 관련 없음	조금 관련 있음	매우 관련 있음	전 체
백분율 (%)	18.7	34.1	39.0	8.1	100.0
빈 도 (명)	23	42	48	10	123

폭력써클 가입과 실제 폭력행동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52.8%, 관련이 있다가 47.1%로 관련이 없다는 응답이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 조사가 자기보고인 것을 감안해 볼 때 자신들 스스로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폭력가해집단의 폭력행동

비행청소년집단인 불량써클과 비행의 관계를 알아본 김준호·노성호·곽대경의 선행연구(1992: 244-245)에 따르면, 당구장출입, 흡연, 음주, 디스코장출입 등 비교적 가벼운 비행경험에 있어 불량써클 가입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에 평균 10.2와 3.7로서 매우 큰 차이가 있었고, 금품갈취, 가출, 본드 및 환각제 사용, 절도, 무단결석, 흉기소지, 패싸움, 폭행 등 중 비행 경험에 있어서도 8.9와 1.7로 매우 큰 차이가 있어 불량써클활동 등과 폭력비행이 매우 관련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도 폭력써클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비행활동이 패싸움, 폭행, 기물파괴, 금품갈취 등 주로 폭력비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폭력써클 가입자의 46.2%가 한달에 한두번 이상 다른 사람을 폭행했고, 45.0%가 패싸움을 했다고 하며, 35.6%가 물건을 부쳤고, 21.9%가 돈이나 물건을 뺏었다고 한다.

<표 III-40> 폭력써클의 한달간 비행활동

(단위 = %, 명)

구 분	전혀 없음	한두 번	서너 번	5번 이상	사례수
패싸움	55.0	38.3	4.2	2.5	120
폭 행	53.8	35.3	4.2	6.7	119
품갈취	78.0	16.9	2.5	2.5	118
기물파괴	64.4	26.3	5.1	4.2	118
유해업소 출 입	13.6	35.6	24.6	26.3	118
유해약물 이 용	94.8	4.3	0.9	-	116
오토바이 폭 주	81.9	10.3	3.4	4.3	116

또한 당구장, 오락실, 술집 등의 출입은 거의 생활화되어 한달에 다섯 번 이상 출입하는 경우도 26.3%이고, 한두번 이상은 86.5%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유해약물이용이나 오토바이 폭주는 그다지 많지 않아 한달에 한두번 이상 한 경우가 약물은 5.2%, 오토바이 폭주는 18.0%인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5. 청소년폭력에 대한 인식

1) 청소년폭력발생 인식도

학교 안이나 주변에서의 청소년폭력이 평소 얼마나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알아보았는데, 이에 대해 조사대상자의 76.7%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정도에 있어서는 가끔 있다가 48.7%, 자주가 17.9%, 항상 있다가 10.1%라고 응답했다.

<표 III-41> 학교폭력 발생 인식도

구 분	전혀 없음	가끔 있음	자주 있음	항상 있음	전 체
백분율(%)	23.3	48.7	17.9	10.1	100.0
빈 도 (명)	116	242	89	50	497

2) 청소년폭력대책에 대한 의견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대책으로 조사대상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부모들이 자녀를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67.8%). 다음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요청(64.3%), 폭력가해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따뜻한 배려(61.7%), 교사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61.2%), 교사의 폭력적 처벌 자체(50.1%) 등으로 나타나 어떤 정책적인 대책 보다는 부모님과 교사 같은 주변의 영향력 있는 성인들이 모범을 보이고 청소년들을 돌봐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처신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42> 청소년 폭력문제 해결방안

해 결 방 안	백분율 (%)	빈도(명)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짐	67.8	349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요청	64.3	331
폭력가해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따뜻한 배려	61.7	318
교사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골고루 신경을 써줌	61.2	315
교사의 폭력적 처벌 자제	50.1	258
가정 내에서 부모님의 폭력사용 자제	42.9	221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39.6	204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	39.2	202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 운영	38.8	200
학교내 순찰활동 강화	38.1	196
교사가 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32.6	168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두는 것	28.2	145
구체적으로 폭력을 피할 수 있는 교육 실시	27.0	139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집단상담 실시	27.0	139
폭력가해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	26.4	136

IV. 면접조사 결과분석

1. 조사방법

청소년폭력가해자에 대한 사례분석을 위한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는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있는 소년으로써 소년들의 비행유형에 따른 특성을 파악해보기 위해 죄명은 학교폭력으로 제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9년 6월 7일부터 25일까지이고, 조사방법은 연구자가 미리 작성한 조사항목에 대한 면접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보호관찰소에서 상담봉사를 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을 조사원으로 활용해 개별면접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개인적, 환경적 특성, 사건의 정황, 보호관찰에 대한 평가와 욕구, 폭력대책에 대한 의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면접한 소년의 수는 총 10명으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은 여자1명, 남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이 성비를 고려한 것이다. 신분은 실업계고교 재학생 3명과 점정고시나 취업 준비중인 무직자가 5명, 근로청소년이 2명이다. 처분은 모두 장기보호관찰이다.

2. 결과분석

1) 사례 1

① 성별 : 여/ 연령 : 만 15세/ 신분 : 학생(정보산업고 1)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대상자는 즉각적 반응을 보이는 충동적인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고, 사교성이 높아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어울리는 생활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학업에 대한 흥미가 거의없는 등 학교생활에 부적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부모의 건강상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대상자의 심리적 불안이 가중되어 공격적 성향이 직선적으로 표출되어진 것으로 보

여지며,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대상자를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 욕구를 해소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폭력행사의 원인은 가정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욕구불만과 불안감을 공격적 행동으로 외부에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대상자는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파출소에 불려 다니는 불량한 또래집단과 자주 어울려 다녔으며, 학교폭력씨클에 가입하는 등 주변에 폭력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사용하는 또래집단과 관계를 긴밀하게 형성하였다. 이러한 또래관계를 형성한 대상자는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 4명과 문제해결방법으로써 죄책감없이 자연스럽게 후배에게 폭력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998년 2월 10일, 학교근처 골목에서 학교폭력씨클 가입 친구 4명과 학교 후배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하였다. 이유는 학교후배가 대상자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평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상자는 후배의 행동을 대화로써 해결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는 미안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나, 경찰서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는 대상자가 자신의 과격한 행동에 대해 반성은 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법적인 처분까지 받게 한 후배에 대해서 분노감정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대상자는 보호관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관은 자신을 체벌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는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상담을 하는 범죄예방위원회에게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상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를 종합해보면 치우프로그램에는 청소년기의 발달시기에 적절한 다양한 프로그램실

시가 필요되어지며, 이는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진다. 또한 보호관찰소가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대상자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지도와 감독, 원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체육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확충하고 대상자와 적절한 보호위원의 선정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진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학교폭력은 학교 내에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주로 일반적 학생과 달리 눈에 띄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선배나 학교폭력씨클에 의해 폭력의 피해를 입게 된다. 이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편견과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보다는 폭력에 의존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는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개입과 학생들 사이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성인사회에서 정당화되고 있는 많은 폭력이 청소년들의 학교폭력을 양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 사례 2

① 성별 : 남/ 연령 : 만 17세/ 신분 : 중 졸, 무직(검정고시 준비)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대상자는 정서적 안정성이 지나치게 낮고, 자신감이 없는 수동적인 성격적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불안정한 성격적 특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지능과 더불어 대인관계의 부적응, 학습의욕 부진으로 나타났다. 이에 평범한 가정에서의 자기만족을 추구하기 보다는 혼자서 즐길 수 있는 비디오나, 채팅, 폰팅과 같은 유해 환경 접촉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으며, 힘을 과시하는 친구들속에서 판단력 없이 폭력행동을 학습하고 동조하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상자의 폭력행사의 원인은 대상자의 불안정한 성격적 특성

이 또래집단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조, 힘을 얻고 싶은 욕구가 외부로 표출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대상자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면서 학교주변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다니게 되었다. 이에 대상자의 주변에는 비행 또래집단이 많이 존재하였으며, 대상자를 수단으로 하여 비행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대상자의 성격적 특성상 폭력을 주도하는 행동은 하지 못하고 폭력또래집단에 동조함으로써 무비판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④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997년 12월 29일, 상봉터미널 근처에서 학교폭력씨클가입 친구 1명, 동네친구 1명과 학교 후배에게 가방을 빼앗고 주먹질을 했다고 한다. 대상자는 후배의 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많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신의 부적절한 판단력과 수동적 자세에서의 폭력행사 가담을 스스로 인정함으로써 폭력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에 대해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정적인 개념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으며, 범죄예방위원회에 대해서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걱정이나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적으로 범죄예방위원과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생활이 변화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보호관찰 서비스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는 관계로 대상자를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 실시가 필요되어지며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보호관찰에 대한 욕구부분을 살펴보면 보호관찰소가 지역사회에서 정확하게 인식되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청소년들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 분야의 상담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대상자의 응답에서 학교폭력은 학업성취가 우선시되어지는 교육풍토에서 학교당국과 선생님들의 의도적인 무관심으로 양산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내에서 폭력과 왕따문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히 문제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폭력과 왕따로 인한 피해와 심각성을 사회나 학교에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으로 상담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폭력의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폭력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사례 3

① 성별 : 남/ 연령 : 만 17세/ 신분 : 학생(공고 2)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대상자는 평범한 보통가정에서 성장하였으나, 학교에서의 학업부진, 대인관계기술의 부족, 왜소한 체구 등으로 소외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가지고 생활하였다. 이에 학교폭력에 시달리면서 폭력에 대한 양가감정을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폭력비디오를 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지 못한 힘과 폭력에 대한 동경과 갈구로 인해 자신보다 힘이 약한 동네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분노감정을 표출하고, 자신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대상자는 학교폭력의 피해자로 같은 고통을 공유한 또래집단과 자연스럽게 어울려 힘에 대한 동경을 하게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폭력에 대해 묵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자신보

다 약한 동네 초등학생에게 자신이 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여 잠재되어 있던 가해자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스스로 자기의 힘을 인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④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999년 6월, 동네 놀이터에서 동네 친구 4명과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네 초등학생 4학년에게 발로 차고 주먹질을 했다. 대상자는 자신의 폭력사용에 대해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해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못하고 수동적인 자세로 피해 다니는 것을 볼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보호관찰관에게는 호의적인 자세를 가졌으나 수의 부족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많고 형식적인 보호관찰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범죄예방위원회에게는 상담이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인지하고 있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호관찰소에서 상담이 활성화되고, 체육시설과 대상자들이 여유 있게 대기할 수 있는 분위기와 장소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학교폭력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묵인하는 학교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존재가 학교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대책방안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폭력의 피해자들은 스스로에 대한 패배감과 열등감으로 폭력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못하고 혼자서 대체행동양식(폭력)을 찾거나 소극적인 대응으로 폭력을 되풀이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4) 사례 4

① 성별 : 남/ 연령 : 만 19세/ 신분 : 중졸(검정고시 준비 중)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대상자는 학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형과 자신을 비교하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학교성적이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오르지 않고, 모든 것이 뛰어난 형과의 비교를 견디지 못해 가출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과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폭력을 습득하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폭력을 사용한 후 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분노감정과 스트레스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한 대상자는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대상자는 폭력을 쉽게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폭력을 사용하는 친구들과 자주 어울려 다녔다. 또한 주변에 폭력을 행사할 때 그냥 지나치고 피해 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폭력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학교내 폭력씨클에 관해서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견해를 가지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크게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④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997년 10월, 학교근처 커피전문점에서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 3명과 처음 본 학교선배 무리들과 가게 기물을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패싸움을 벌였다. 대상자는 자신이 폭력을 사용한 상황에 대해 어쩔수 없었으며 적절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남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신고한 가게 주인에게는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내면의 심리를 볼 수 있었다. 즉, 대상자는 자신의 분노감정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폭력에 대해 별로 죄책감과 후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에게 친밀감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범죄예방위

원과의 상담에도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위원이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지만 잦은 상담과 과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사회봉사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마음에 부담이 생겨 별로 참가하고 싶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호관찰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과 진로와 관련한 상담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견해

학교폭력은 학교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이 잘 발견되지 않게 비밀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자는 학교폭력에 대해 “어쩔 수 없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폭력사용이 발견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방지하는 방법이라 여기고 있다. 이에 학교와 사회에서는 학교폭력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5) 사례 5

① 성별 : 남/ 연령 : 만 16세/ 신분 : 공고 1 재학중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대상자는 부모님의 정상적인 사랑과 관심을 받았으며, 학교생활에도 적응을 잘하는 학생이었으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성격으로 어린나이에 심각한 유해환경과의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상자는 또래집단과 어울리면서 유해환경의 잦은 접촉으로 비정상적인 윤리와 가치를 습득한 것으로 보여지며, 문제해결방법으로 사용한 폭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대상자는 폭력을 심각하게 사용하는 또래집단과 어울렸으며, 폭력사용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

에 대상자는 또래집단과 자연스럽게 폭력을 사용하고 죄책감을 거의 갖지 않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즉, 대상자는 폭력을 자신과 또래집단의 결속을 높여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 힘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④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998년 3월, 학교 근처 PC방에서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서 초등학교때 친구를 발로 차고 때려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하였다. 대상자는 또래집단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충동적으로 폭력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대상자의 특성상 그 상황에서의 폭력사용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를 묵인하고 동조해 준 또래친구가 암묵적 지지를 해준 것으로 보여진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보호관찰관의 형식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대상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담을 하는 범죄예방위원회에는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친구관계 개선, 진로, 감정조절 등)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프로그램으로는 다양한 취미활동과 집단상담이 실시되어 비행청소년들의 심성을 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보호관찰소의 지리가 외곽에 있는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고, 복지시설이 부족해 보호관찰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⑥ 학교폭력 및 대책에 대한 견해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이 될 정도로 자주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폭력에 대한 정확한 폐해를 학생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교나 사회가 학교폭력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것도 폭력이 양산되게 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폭력에 대한 대책은 학생들의 시각에서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6) 사례 6

① 성별 : 남/ 연령 : 만20세/ 신분 : 직장인(기술직 보조)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대상자는 비교적 온화하며 인정 많고 사قم성도 좋은 성격을 지닌 소유자로, 중학교까지는 학업성적은 뒤떨어졌지만 평온한 가정분위기에서 평범한 학교 생활을 한 학생이었으나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유해환경 접촉이 잦아지면서 우발적인 폭력행동이 표출되어 법적인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이에 스트레스가 더욱 증가되어 자포자기상태로 빠져들게 되었으며, 그 와중 심리적 지지자였던 어머니의 사망은 대상자에게 또 다른 큰 충격으로 더욱 공격적이고 폭력적 성향을 외부로 표출하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했던 학교생활에서 강제로 자퇴를 당하고 담임 선생님께서부터 심한 냉대와 모욕을 느껴 낙오자가 된 기분으로 친구들과 지나치게 밀착된 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폭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한 두 번의 우발적 폭력이 학교로부터 소외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자신을 신뢰해 준 어른들로부터 실망의 대상이 되어 소속감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상황의 비행또래친구들과 쉽게 어울려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대상자가 집이나 학교에서 소외되어 소속감을 주는 집단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된 생활을 하게 되어 폭력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집단으로 같이 행동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 생각이 대상자가 폭력을 남용한 요인으로 분석되어진다.

④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997년 8월 13일, 동네에서 길가던 중, 친구, 후배 등과 함께, 지나가

며 시비 걸던 3명의 청소년들 중 1명에게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다는 것이 상대의 코에 맞아 코뼈를 부러뜨렸다. 폭력 건으로 이미 여러 차례 법적 처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무척 조심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있었는데 또 다시 이러한 상황에 말려들어 욕 하는 성격에 일을 일으키게 되어 무척 속상해 하며 후회와 반성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행동에 대해서는 양가감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본인이 맞더라도 참지 못한 것에는 정말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당시에는 계속 나쁜 일에 휘말리면서 침울한 시간을 보내던 시기라 분노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같은 처지의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여기에 서비스를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을 저질러 왔기 때문에 무슨 욕구는 없고 별로 기대 하는 것도 없어요”라고 하며, 다만 바깥에서는 “학교나 사회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되고, 인격적으로 큰 상처를 받을 만큼 모욕적인 언어는 삼가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응답했다.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범죄예방이나 대상자들을 보호하기 보다는 감시하는 사람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호관찰소에 큰 기대나 바램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비행자들간에 서로를 관찰하고 개관적으로 서로를 비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를 원하였으며, 다른 과외 활동이나 시설이용은 자신의 처지가 몇몇하지 못해 이용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매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⑥ 폭력 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학교 폭력은 학교생활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힘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학교에서는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잘못 표출되는 행동양식을 수정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며, 교사의 체벌도 학생들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의

토대 위에 합리적으로 이루어져만 진정한 체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회나 학교에서는 한 두번 폭력 등으로 잘못을 한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인 낙인이나 소속된 환경에서 격리가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관용을 베푸는 지혜를 발휘할 때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7) 사례 7

① 성별 : 남/ 연 령 : 만 18세/ 신분 : 무직(기술 수련 중)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어려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술주정과 어려운 가정 환경으로 무척 주눅이 들어, 매사 산만하고 정서적 불안감을 지닌 상황에서 또래집단에서의 자유스러운 해방감은 그들과 동조하여 비행에 가담하게 되고, 쉽게 돈을 벌어 만족하는 방법으로서 뺑치기에 습관이 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생활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즉, 대상자의 습관적인 뺑치기와 이를 통한 기본적인 욕구해결이 일상화 되면서 유해환경에서의 대상자의 폭력이 자연스럽게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대상자는 자신의 폭력 유발의 직접적 동기로 또래 집단과의 어울림속에 마시는 술을 꼽고 있으며, “친구들과 술을 먹게 되면 나태해지고, 밤늦게 돌아다니다 보면 상대방에서 시비를 거는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거는 수도 있어 그때 가장 폭력을 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라고 반응하여 또래집단에서의 자유스러운 해방감은 쉽게 비행에 가담하게 했고, 돈을 벌어 만족하는 방법으로서 뺑치기가 습관이 되어 폭력을 행사하는 생활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④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 가해 상황

1998년 4월에 대구 상인동 동네에서 친구 4명과 함께 동네 남자 고등학교를 주먹으로 얼굴을 4명 모두 때리고, 돈 2만 6천원 빼앗았다. 대상자

는 친구들과 대구에 내려가 가지고 있던 돈을 유홍비, 여관비로 전부 사용하고 자신들의 주 특기인 ‘뺑치기’를 하여 돈을 쉽게 마련코자 했으나, 피해자의 즉각적인 신고로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되었다. 대상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반성의 빛을 보이며 이번의 처벌을 자신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데 좋은 계기로 인식하여 피해자에 대한 원망보다는 고마움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어머니의 포장마차일을 도우며 네온싸인 기술을 익히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역력하고 긍정적이며,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는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으며, “우리같은 정도의 죄 지은 애들 한테는 참 좋은 제도죠.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죄값으로 치루고 있어야 하고 상담을 할 수 있어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라며 자신이 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이 정도의 처벌도 받지 않는다면 자신이 계속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비행을 계속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보호관찰제도가 이 대상자에게는 아주 합리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소 내의 지도와 감독의 태도가 좀 부드럽고, 인간적으로 존중받는 느낌을 주어 서로의 신뢰를 쌓은 상태에서 보호관찰이 진행된다면 더욱 대상자에게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학교 폭력은 주로 학교 생활에 부적응하고 있는 학생들이 힘의 과시에서 비롯되는 일이 많으며, 이들이 학교를 벗어나 허술한 감시를 틈 타 더 많은 비행을 하게 되며, 여기서 획득한 좋지 못한 폭력적 기술을 교내에서 약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회의 많은 유해적 환경이 학교폭력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회와의 철저한 감시 연계 체제를 확립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볼 때 학교폭력은 반드시 지역사회와 연계한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으며, 학교내 상담실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문제를 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8) 사례 8

① 성별 : 남/ 연령 : 만 17세/ 신분 : 무직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대상자는 평소 유순하고 명랑한 성격으로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자랐으며, 한번 화가 크게 날 때 스스로를 억제하지 못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중 3때부터 같은 또래의 문제아인 친척 1명과 친하게 지내다 술, 담배 등을 배우며 여러 가지 비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동네 싸움 잘 하는 집단의 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며 정상적인 학교생활과 가정생활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문제아로 전락하게 되었다. 대상자는 친구 수십명과 몰려 다니며 폭력적 행동을 망설임 없이 행하였으며, 이는 비행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면서 유해화학흡입, 절도, 폭력 등의 건잡을 수 없이 비행으로 빠져든 것으로 보여진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대상자의 경우 교내 싸움은 가입하지 않고, 가깝게 지내던 같은 또래의 비행 친척소년과 행동이 밀착되면서부터 비행을 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동네 불량집단과도 쉽게 친하게 되었고, 그들과 같이 행동하면서 힘을 과시하는 것이 재미있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대상자에게는 비행친구와의 행동일치가 자신의 유약함을 가릴 수 있는 수단이 되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해방감에 비행과 폭력으로 쉽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쾌감을 느끼고 폭력적 일탈행위를 해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④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폭행)가해 정황

1997년 9월, 건대입구 오락실 근처에서 친구, 후배, 여자친구들(모두 15명정도)과 함께 후배와 후배 친구 3명을 “돈 좀 빌려달라, 혁대도 내 놓아라”하며 혁대와 돈 2000원을 빼앗고 때렸다. 자신의 집단 속에서 별 의식없이 이루어진 행동이나 이제는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틀림없으며, 처벌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정도 없고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 단지 “이유없이 경관에게 엄척 맞은 2명의 친구가 참 안됐어요”라고 하며, 언제나 법이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의 크고 작은 비행에 대하여 상대의 터무니없는 합의금 요구에 집안 사정을 아는 대상자로서 되도록이면 합의를 안하고 몸으로 때우고자 했었다고 하며, 평소 화목한 가정의 평범한 소년이 비행친구들과 접촉하게 되면서부터 꺾게 되는 심리적 변화와 그에 따른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대상자는 자신의 비행에 대한 처분으로서 보호관찰제도는 좋은 제도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보호관찰소 직원과 대상자들과의 관계가 좀더 부드럽고 인간적인 관계가 되길 원하고 있다. 그 외에는 학력이 부족한 대상자와 같이 사회의 적응과 직장 구하는 문제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직업에 관한 전문적 상담이나 교육 서비스를 보호관찰소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견해

대상자는 폭력의 원인으로 불평등한 인간대우를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바, 우리 사회에 만연된 능력위주의 인간차별의 양상은 아무런 문제도 보이지 않던 평범하고 온화했던 청소년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학교 내 불평등한 대접으로 심한 심리적 불편함과 압박감이 동조집단과 어울리면서 공격적 성향으로 분출되어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한 요인으로 분석되

어진다. 이에 학교내 분위기를 성적 지향적 능력위주의 등급을 매기는 것에서 개인적 인간적인 특성에 기인한 관계형성으로 중점을 두는 것이 폭력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9) 사례 9

① 성별 : 남/ 연령 : 만 18세/ 신분 : 비일정직(서비스 업종)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부모님의 불화와 이혼, 아버지의 병 등으로 불안한 가정의 환경속에서, 충동적이고 절제할 수 없는 자신의 성격이 또래의 친구들과 어울리다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사고력이 부족해 복잡한 생각을 하지 못하며, 분명한 사리판단이 부족한 채 자극에 대한 즉각적 공격으로 심리적 스트레스와 욕구를 공격적 성향으로 표출것으로 판단된다. 대상자의 폭력성은 아버지의 지나친 익애적 태도로 인한 의존적이고 무책임한 성향이 있기는 하나, 자신의 말처럼 가정적 문제라기보다는 자신의 충동적이고 절제 못하는 공격적인 성격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처음부터 학업능력의 부재로 학교의 생활은 그저 친구들과의 교제와 소속감 정도의 의미였고, 불량 또래집단과의 교제가 깊어지면서 비행-가출-비행-가출의 생활이 순환을 하게 되고, 노는 재미가 몸에 배이게 되자 아예 학교와 가정의 존재는 대상자에게 잊혀지게 되고, 걱정해 주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고 잔소리만 치부하는 등 거친 저항감을 보여주었다. 관계하는 친구들이 거의 전과를 갓은 비행소년들이라 재비행의 상황으로 쉽게 노출 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금도 안고 있다고 보여지며, 아무런 이유없이도 약한 상대를 괴롭히고자 하는데도 폭력을 행사 할 수 있을 정도로 집단력의 대담성까지 갖춘 것으로 보인다.

④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 가해 정황

1997년 10월, 송파 잠실 병원 앞에서 친구 5명과 길가던 모르는 애들

6명에게 보복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이유를 따져 보지도 않고 그저 자기편이 당했다는 단순한 생각으로 보복을 생각했을 정도로 무모한 면이 있고, 폭력에 대한 결과를 생각지 않고 강목을 손에 잡히는 대로, 일단 상황이 벌어지면 물불을 안가리고 폭력에 몰두하는 무서운 모습을 보여주며, 저지르고 난 뒤에야 잘못됐음을 아는 사리 판단의 부족과 폭력의 무차별 성향을 지니고 있음이 보여진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도 그저 남의 일로 간주하는 정도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깊은 감정적 관계를 피하는 책임감이 결여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대상자는 전반적인 보호관찰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고, 지금까지는 상담시간이 좀 잦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통의 불편과 보호관찰직원들의 거친 태도에는 약간의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단 상담의 필요성은 숙지 하고 있으며, 단체활동에 흥미를 보이고 있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대상자의 폭력에 대한 견해는 철저히 폭력을 휘두르는 입장에서의 견해로 폭력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이해 분석해내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 단지 자신의 경험으로, 폭력의 존재를 인정하며 자극하지 않는 조심성 있는 생활 태도를 권장하고 있다. 이로 볼 때 학교폭력에서의 원인을 좀더 철저히 조사하여, 원인제거에 중점을 두고, 노는 아이들도 마음 붙일 수 있는 학교 프로그램과 폭력이나 왕따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는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갖을 수 있도록 교육 시켜야 할 것이다.

10) 사례 10

① 성별 : 남/ 연령 : 만 16세/ 신분 : 직장인(기술 서비스직)

②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성격은 온화하나 내성적으로,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남에게 애비없는

아이라는 소리와 외모에서 풍기는 빈약함등으로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나이를 막론하고,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즉 일진회의 가입으로 폭력동조집단과 같이 행동하면서 남이 자신을 만만하게 보지 못하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③ 또래집단과의 관계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이성친구와 폭력동조집단 속에서만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상황에서, 비행청소년들과 몰려다니며 폭력을 행사하고 비행에 자연스럽게 젖어 들게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을 통해 자신을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힘을 과시하여 방어 할 수 있다고 대상자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④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 가해 정황

1997년 6월, 호프집에서 썬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선배 2명, 친구 2명들과 어울려 있다가 평소 안좋게 지내던 다른 중국집에서 일하는 애들에게 싸움이 붙어 발로 얼굴을 차고, 뺨을 때렸다. 이번에 처분된 폭력사안에 대하여 대상자는 “술김은 아니고 판단을 하고 폭력을 사용했어요!”라며 자신의 폭력 행동에 나름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스스로 자위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주며 피해자에 대해 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 이는 합의를 하지 않고 스스로 처벌을 달게 받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스스로의 폭력에 대해 정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대상자는 타인으로부터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에 대해 모욕을 느끼는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는 무척 민감한 반응으로 절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폭력적 대응 방식을 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⑤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대상자는 보호 관찰관 제도가 좀더 확실한 관리나 보호 차원에서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으며, 현재의 보호관찰직원의 근무태도는

질이 낮아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으며, 시설면에서도 낙후된 시설과 건물이 주는 삭막함이 정을 느낄 수 없다며, 시대에 부응하는 현대성을 갖추길 바라고 있다.

⑥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대상자는 자신의 부친이 부재한 환경, 왜소한 외모, 말수가 적은 자신의 성격을 열등감으로 느껴 그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만만하게 보이지 않으려는 해소 방법으로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여 폭력에 가담해 왔고, 일진회 등 교내에서 힘의 우위에 있는 집단에 소속하여, 자신이 만만한 대상이 아님을 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학교내 폭력원인의 한 유형으로 청소년기의 열등감을 건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3. 소결

조사대상 소년들의 비행원인이 될 수 있는 성격적 특성과 가정환경 같은 개인적 요인들은 모두 제각각으로 차이점이 많았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공통점은 성격면에서 활발하고 자신감이 있는 소년들의 경우 동급생과의 패싸움이나 기물파괴 등의 폭력을 저질렀고,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낮은 소년들의 경우는 자신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이다. 또한 가정환경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 부모의 무관심 등 여러 가지 차이가 있었지만 공통점은 대체로 가정생활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대상 소년들의 이러한 가정에 대한 불만은 또래집단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하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소년들 모두 공통적으로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들과 밀접하게 어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소년들의 보호관찰에 대한 인식도를 살펴보면, 먼저 인력면에서는 대체로 보호관찰관에 대해서는 불친절하고 별로 도움주는 것이 없

는 것으로 보는 등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범죄예방위원에 대해서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으로써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치우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상담 외에는 받아본 것이 없는데, 심성훈련 등 수련활동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으나 강제적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시설면에서는 교통이 불편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고, 기다리는 시간에 뭔가를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나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겠다는 욕구를 나타냈다.

이상 사례분석을 모든 경우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이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폭력범 소년이라고 하여 성격이나 환경면에서 일반 청소년들과 크게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방식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즉,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기 보다는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가정내의 불만을 비행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해소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폭력 가해소년들에 대한 보호관찰 치우프로그램으로는 분노조절 프로그램, 인간관계 훈련프로그램 등 비행소년을 위한 심성개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치우는 주로 개별상담에 그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집단상담을 실시하고, 이 외에도 소년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제공은 국가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청소년관련기관 등 다양한 사회자원을 활용해야 한다. 우선은 소년들에게 민간인으로서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사회사업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주부 등을 활용한다면 전문성을 가진 봉사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1. 요약

이 연구는 폭력비행을 저지른 보호관찰 소년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동기 및 정황 등 폭력비행 실태파악 및 분석을 통해 청소년폭력의 원인을 탐색함으로써 청소년폭력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사점을 얻고, 또한 폭력비행을 저지른 보호관찰 소년들의 성격 및 환경 등 그들을 둘러싼 제반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정책적 대처방안을 모색함과 동시에 이들 청소년 개개인의 특성에 적합한 개별화된 처우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폭력을 저질러 현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증적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이 폭력피해를 입힌 상대방은 대부분 청소년(75.6%)이고, 이들은 평소 전혀 모르는 사이(72.0%)였으며, 폭력비행은 주로 2명 이상 집단적(87.0%)으로 이루어졌고, 사건발생 장소는 학교주변 보다는 주택가(50.2%)인 경우가 더 많았다. 폭력비행을 저지른 이유는 피해자의 유발(51.2%)을 주로 들고 있어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발각 이유는 피해자의 신고(57.8%)가 가장 많아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처가 청소년 폭력문제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 중에서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과 없는 소년을 나누어 개인적·환경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적 특성면에서는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이 없는 소년에 비해 더 공격적인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폭력사용에 대해서도 더 허용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고, 폭력이외의 비행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적 특성면에서는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이 없는 소년에 비해 가정분위기가 더 폭력적일 뿐 아니라 부모로부터

맞은 경험도 더 많아 가정환경이 매우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로 부터 맞은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환경도 역시 폭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뿐 아니라 유해환경 접촉에 있어서도 폭력비행 경험에 있는 소년이 없는 소년에 비해 음주·흡연, 음란·폭력매체 접촉, 유해업소 출입·고용 등의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들은 없는 소년들에 비해 개인적인 성격이나 의식이 더 폭력적이고, 그들을 둘러싼 제반환경도 매우 폭력적이어서 전반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 중에서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과 없는 소년을 나누어 또래관계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친구의 수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으나 친한 친구 중에서 비행경험이 있는 친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었는데, 폭력비행 경험이 있는 소년들이 비행경험 있는 친구들도 더 많았다. 또한 이들 집단은 폭력씨클에 가입한 경험도 더 많았는데, 이들 폭력씨클의 주요활동은 패싸움, 폭행, 금품갈취, 기물파괴 등 주로 폭력행동이 차지하고 있어 청소년의 폭력씨클 활동이 청소년 폭력비행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보호관찰 소년들의 청소년폭력 대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보면, 어떤 정책적인 대책보다는 부모나 교사 같은 주변의 영향력 있는 성인들이 폭력사용을 자제하고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돌봐주기를 기대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피해자들이 신고나 도움요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두 가지 측면의 정책 제언을 도출할 수 있다. 하나는 청소년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이고, 다른 하나

는 폭력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방안이다.

먼저 청소년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은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원론적인 수준의 것이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 다시금 관련성이 확인된 것들로써 첫째, 조사결과 부모의 체벌이나 가정의 폭력적 분위기가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님의 이해와 관심이 효과적인 폭력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지나친 체벌을 자제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지도해 나가고 부부간에도 폭력적인 언사나 행동을 삼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교육을 위한 사회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부모교육일 것이다. 둘째, 조사결과 교사의 체벌이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가 학생들을 차별 없이 골고루 신경 써주는 것이 효과적인 폭력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는 체벌을 금지하고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하며, 또한 교사들의 갈등과 스트레스가 유발되지 않고 학생 개인에게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교육여건의 조성도 선결되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조사결과 유해환경 접촉이 청소년의 폭력행동과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국가적 노력과 아울러 지역사회 단위의 노력 및 학교주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유해매체에 대한 시민 감시활동도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사결과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요청이 청소년폭력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폭력 피해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현재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전문 상담기관이 더욱 활성화되어 청소년폭력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폭력비행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에 대한 개별

화된 처우방안에 관해 제언으로써 첫째, 조사결과 비행은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소년들 중에서도 폭력비행의 경향이 있는 소년과 없는 소년 간에는 분명 개인적·환경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호관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대상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분류를 통해 다른 특성이 나타나는 비행들을 유형화하여 이들 비행유형별로 개별화된 처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폭력비행을 저지른 소년들을 위한 개별화된 보호관찰 프로그램으로써 각종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공격성 완화를 위한 심성훈련,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의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치관정립교육, 음주나 흡연의 중단을 위한 약물교육, 유해매체에 대한 비판적 수용의식을 길러주기 위한 미디어교육, 일반 친구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나 폭력 피해자와의 관계개선을 위한 인간관계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그것이다. 셋째, 여가시간에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한 각종 수련활동이 시행되어야 한다. 현재 중단상태에 있는 대학생 멘터프로그램을 보호관찰제도에 도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넷째, 보호관찰 소년들이 청소년폭력대책으로써 가장 유효하게 생각하는 부모 및 교사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이들의 폭력사용 자제를 위해 보호관찰 소년들과 부모 또는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년들은 부모나 교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들과의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고, 부모와 교사는 그들의 자녀와 학생들을 지도함에 있어 가장 영향력있고 의미있는 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개별화된 처우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으로써 보호관찰소의 인원 확충과 보호관찰소의 확충이 시급하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의 시행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공적 자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회와 같은 민간 인적자원과 지역사회

의 물적자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개별화된 처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자원만으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요구된다. 따라서 다양한 사회자원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써 전문 청소년복지기관들의 협조를 받고, 더 나아가 일정한 정도의 보호관찰 처우프로그램은 용역을 주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보호관찰 소년에 대한 분류와 다양한 처우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보호관찰 소년 개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이 개선·교화하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문헌>

- 김준호, 김선애(1992). 한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곽대경(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노성호, 오수정, 장은숙(1991). 청소년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박미성(1993). 친구와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1997). 학교주변 폭력의 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노치영(1998). 가정폭력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대검찰청(1999).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백서. 서울: 대검찰청.
- 박용옥(1999). 학교체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 교사연구논문.
- 신희구(1985). 소년감별위탁기관 및 위탁기간에 관한 개선방안. 청소년범죄연구 제3집. pp. 104-116.
- 양윤정(1993). 국민학교 고학년 아동의 폭력video영화 접촉과 공격성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오영근(1999). 보호관찰 시행 10년의 회고와 전망. 보호관찰제도의 회고와 전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p. 11-24.
- 원호택(1990).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민희, 이명숙, 정희옥, 이춘화(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춘화(1995). 청소년의 폭력에 관한 의식 및 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전병재(1990).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준현(1989). 수형자의 분류와 인격조사. 행형의 과제와 실험. 서울: 법무부. pp. 1-45.

최인섭, 진수명, 김영진(1993). 소년보호관찰의 평가와 효율성분석.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황성숙(1998). 학교내 집단괴롭힘에 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본문헌>

森下忠(1988). 犯罪者處遇論の課題. 東京: 成文堂.

森下忠(1990). 刑事政策大綱. 東京: 成文堂.

清水和夫(1999). “保護觀察處遇施策の50年の流れ”. 犯罪と非行 119.

澤登俊雄(1975). 犯罪者處遇制度論(上)-少年法制. 東京: 大成出版社.

平野龍一(1984). アメリカの刑事司法-犯罪學II. 東京: 有信堂高文社.

<영미문헌>

Corvo, Kenneth N(1997). Community-based youth violence prevention -A framework for planner and funders. *Youth & Society, Vol 28 No. 3*. pp. 291-316.

Jenkins, Richard L. and Eve Blodgett Gowdey(1981). *Prediction of violence*.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Publisher.

Landau, Elaine(1990). *Teenage violence*. Englewood Cliffs : Julian Messner.

- McConnell, Elizabeth(1994). High school student : An assessment of their knowledge of gangs. *Youth & Society. Vol. 26 No. 2.* pp. 256-276.
- Menard, Scott and David Huizinga(1995). Changes in conventional attitudes delinquent behavior in adolescence. *Youth & Society. Vol. 26 No. 1.* pp.23-53.
- Morse, Barbara Jean(1986). *Self-reported juvenile violent offenders and their offending careers: A descriptive analysi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Colorado.
- Olweus, Dan. 이동진 역(1996).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서울: 삼신각.
- Salts, Connie J., Byron W. Lindholm, H. Wallace Goddard and Stephen Duncan(1995). Predictive variables of violent behavior in adolescent males. *Youth & Society. Vol. 26 No. 3.* pp. 377-399.
- Sommers, Ira and Deborah Baskin(1994). Factors related to female adolescent initiation into violent street crime. *Youth & Society. Vol. 25 No. 4.* pp. 468-489.
- Vold, George B., Thomas J. Bernard and Jeffrey B. Snipes(1998). *Theoretical Crimin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olfgang, Marvin E. and Neil Alan Weiner(1982). *Criminal violence.* Beverly Hills : Sage Publications.

ABSTRACT

Study on the youth violence offender and gang

This study is intended to utilize as basic data which will help us consider counter plans to the youth violence and treatment suitable to these various and individualized characteristic by understanding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the youth own, and the reality of violence through questionnaire to and interview with the youth under probation.

The result of this survey is as follow:

1. 51.2% of the respondents justify their wrong doings, saying the cause of that violence is blamed on the victim. The disclosure of such a violence is caused by the victim's reporting to the police. This fact reflect active posture is essential for solving the problems such as the youth violence.

2. In the aspect of individual characteristic, the youth who used to commit violence are more aggressive and more inclined to use violence. And in the respect of environmental characteristic, the offenders are hit by their parents or teachers much more often than others who don't use violence, and family violence of the youth violence offender is more serious.

3. In the relation with their peers, they have friends as many as their peers do. but they not only have more close friends who used to misconduct and but also are more likely to join youth violence gang.

4. The youth in probation suggest it is more important for adult like teacher or parents to be less violent and take care of the youth

faithfully than any other politic measure. while they also recommended victim should have active attitude by way of notifying and calling on someone for help.

On the ground of the result of this survey, we can offer policy as follows:

Firstly, It is concerned with precautionary measures to the youth violence and the protection of the victim.

1) politic support should be in advance accomplished to develop and perform social programs for instructing, parents as measure of domestic level.

2) Educational institutions should be innovated by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and performing the programs which can make quality of teacher improve. And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improve to take a interest in their pupils.

3) Government and local society should strengthen to purify pernicious environment and ride herd on the harmful places attracting students. And the civil watch over harmful mass-media should be more activated than ever.

4) Various methods of notifying should be invented for the victims of school violence.

Secondly, It is concerned with individualized treatment to the youth currently under probation.

1) We need to classify the offenders with speciality. And then, we can make ideal type on the basis of the specialized classification. This process can offer individualized treatment along the type of misconduct.

2) Vari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and performed. These programs consist of mental training, training for

moral value, media training, human-relation training, the education of letting the youth what the substance of during really is and other else.

3) Various drills should be practiced to spend their leisure time with soundness as a part of preventing the youth from the harmful environment during spare time.

4) collective counselling programs which the youth in probation mentioned the most effective should be put into operation. Especially this program require the offenders and their parents or teachers to join together.

5) Now, we are urgent to expand probation institution and supplement probation personnel to carry out the above mentioned programs.

부록 1 : 설문지

--	--	--

청소년의 생활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개발원은 청소년 건전육성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이 조사는 청소년들의 생활실태를 알아보아 연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문의 응답은 맞고 틀리는 것이 없으며 결과는 숫자로 부호화되어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여러분 개인의 응답에 따른 비밀은 보장됩니다.

조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고 정확하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99년 9월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청소년개발원

복지정책연구실 2188-8835

C. 다음 각 문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오른쪽에서 골라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1. 법으로 해결안되는 일이 폭력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결과가 좋다면 폭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 . . ① ② ③ ④ ⑤
3.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는 데는 폭력이 대화
보다 낫다 ① ② ③ ④ ⑤

D. 다음은 당신의 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의 부모님은 다음 사항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두분 모두 친부모 ② 아버지 또는 어머니만 계심
③ 친부모 한분과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 ④ 두분 모두 새아버지 · 새어머니
⑤ 두분 모두 안계심
2. 다음 보기중에서 부모님의 학력에 해당되는 번호를 골라 괄호안에 적어 주십시오.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중퇴 · 졸업 ③ 중학교 중퇴 · 졸업
④ 고등학교 중퇴 · 졸업 ⑤ 대학교 중퇴 · 졸업 이상
- 1) 아버지() 2) 어머니()
3. 가족 전체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① 50만원 이하 ② 50~100만원 사이
③ 100~200만원 사이 ④ 200~300만원 사이
⑤ 300만원 이상

E. 다음 각 문항이 평소 당신 가족의 모습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오른쪽에서 골라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	-----------------	-----------	------------	-----------

1. 우리 부모님은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나를
심하게 때리신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부모님은 서로 싸우거나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집 형제자매는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나를
심하게 때린다 ① ② ③ ④ ⑤
4. 우리집 형제자매는 서로 싸우거나 화가 날 때
상대방을 때리거나 물건을 부순다 ① ② ③ ④ ⑤

F. 당신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1년에 보통 몇번정도 당했습니다?

전혀 없음	한 두번	서 너번	5번 이상
----------	---------	---------	----------

1. 강제로 물건이나 돈을 뺏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맞아서 몸이 멍들거나 상처가 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겁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협박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심한 욕이나 저주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5.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G.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일을 1년에 몇 번 정도 당했습니다?

전혀 없음	한 두번	서 너번	5번 이상
----------	---------	---------	----------

1. 몽둥이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2. 출석부나 책으로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3. 손으로 뺨이나 머리를 맞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심한 욕을 들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H. 당신은 아래와 같은 행동을 한달에 보통 몇번 정도 하나까?

	전혀 없음	한 두번	서 너번	5번 이상
1. 친구와 술마시기	①	②	③	④
2. 본드나 가스, 환각제 사용	①	②	③	④
3. 단란주점, 카페 등 출입	①	②	③	④
4. 디스코텍 출입(콜라텍 제외)	①	②	③	④
5. 유흥업소에서 일하기(접대부, 뺑끼, 보도방 운영 등)	①	②	③	④
6. 음란비디오(포르노) 보기	①	②	③	④
7. 하루에 피는 담배 : ① 안피움 ② 1-2개피 ③ 3-10개피 ④ 한갑 ⑤ 한갑이상				

I. 당신은 만화나 비디오, 인터넷 등 매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달에 보통 몇번 정도 보았습니까?

	전혀 없음	한 두번	서 너번	5번 이상
1. 수준낮은 말이나 욕	①	②	③	④
2. 잔인하고 폭력적인 장면	①	②	③	④
3. 구체적인 범죄방법 묘사	①	②	③	④

J. 친한 친구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됩니까?

	없음	¼ 정도	절반 정도	¾ 정도	거의다
1. 가출	①	②	③	④	⑤
2. 오토바이 폭주	①	②	③	④	⑤
3. 본드, 가스, 환각제 사용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 훔치기	①	②	③	④	⑤
5. 돈이나 물건 뺏기	①	②	③	④	⑤
6. 다른 사람 폭행하기	①	②	③	④	⑤

K. 다음은 당신의 친구관계와 폭력씨클활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당신은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 ① 아무도 없다 ② 1-2명 ③ 3-4명 ④ 5명 이상

2. 다음 중에서 청소년 폭력문제 해결에 효과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모두 골라 주십시오.

- ①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
- ②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나 도움요청
- ③ 가정내에서 부모님의 폭력사용 자제
- ④ 부모님이 자녀들을 이해하고 많은 관심을 가짐
- ⑤ 구체적으로 폭력을 피할 수 있는 교육실시
- ⑥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두는 것
- ⑦ 교사의 폭력적 처벌 자제
- ⑧ 교사가 학생들을 차별하지 않고 끝고루 신경을 써줌
- ⑨ 교사가 폭력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
- ⑩ 학교내 순찰활동 강화
- ⑪ 학교 주변 순찰활동 강화
- ⑫ 학교폭력 전용 신고전화 운영
- ⑬ 폭력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함께 참가하는 집단상담 실시
- ⑭ 폭력가해 청소년에 대한 철저한 법적 처벌
- ⑮ 폭력가해 청소년에 대한 주위의 따뜻한 배려

-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2 : 면접조사지

I. 조사대상자의 기본적인 특성

1. 성별
2. 연령
3. 신분 : 학생, 직업, 무직 등의 여부
4. 비행명
5. 처분명
6. 보호관찰 시작시기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1. **성격적 특성** : 성격, 열등감, 만족도 등 성격적 특성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2. **비행경험** : 가출, 절도, 강간 등 비행경험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3. **폭력의의식** : 폭력사용에 대한 합리화, 정당성, 거부감, 반성 등에 관한 의식과 폭력행동의 관련성

4. **가정환경** : 가족관계, 가족사, 부모의 직업 및 가정의 경제상황, 부모의 양육태도 및 부모와의 관계, 형제 및 기타 가족과의 관계 등 가정환경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5. **학교생활** : 학업성적 및 만족도, 부모의 만족도, 공부에 대한 압박감, 공부에 대한 흥미 및 성취욕구, 하루에 공부하는 시간 및 부모의 태도,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의 느낌 등 학교생활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6. **유해환경 접촉** :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PC방, 전화방, 윤락가 등 유해업소출입경험, 음란만화, 폭력비디오, 야설, 폰팅, 700서비스 등 유해매체 접촉경험, 음주, 약물, 히로뽕, 코카인, 가스, 본드 등 유해약물 사용

경험과 같은 유해환경 접촉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친구의 수 및 접촉도, 친구와의 친밀도(속마음을 털어놓는 정도의 친구 수, 그 친구와의 애착정도 등), 친구와 주로 하는 일 등 친구관계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2. 비행친구관계 : 친구 중 비행을 저지른 경험이 있는 친구수 및 그와의 접촉도,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친밀도, 영향도), 비행친구에 의한 비행압력, 함께 비행을 저지른 경험 등 비행친구관계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3. 이성친구관계 : 이성친구 수, 사귀 경험, 애착도, 성관계 여부 등 이성친구관계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4. 폭력행동 동조집단관계 : 학교폭력을 행사할 때 동조한 친구들 및 방관한 친구들, 폭력써클의 존재여부, 폭력써클 가입여부 등 폭력행동 동조집단과의 관계 중 폭력행동의 원인이 된다고 보이는 내용

IV.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상황

1. 언제 폭력을 행사했나
2. 어디서 폭력을 행사했나
3. 누구와 함께 폭력을 행사했나(동조하는 가해집단)
4.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했나
5. 어떻게 폭력을 행사했나
6. 왜 폭력을 행사했나
7. 폭력을 당한 학생 : 그 학생의 특성, 때린 이후 그 친구와의 관계(지속적인 폭력행사 여부, 신고를 못하도록 협박했는지 여부, 화해여부 등)

8. 폭력행사가 발각된 과정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보호관찰관이 조사대상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만족도), 보호관찰관에 대한 느낌(권위적, 친밀감 등), 수적인 부족, 보호관찰관에게 바라는 점 등

2. **범죄예방위원** : 범죄예방위원은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지(만족도), 범죄예방위원에 대한 느낌, 수적인 부족, 바라는 점 등

3. **처우프로그램** :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하게된 프로그램들의 내용 및 이에 대한 평가(상담, 정신교육,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여러 가지 활동 중 유익하거나 재미있었던 것들), 추가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활동에 대한 건의 등

4. **시설** : 보호관찰소의 시설에 대한 만족도(지리적 위치, 교통편, 상담 등의 프로그램 진행장소의 협소함 등), 개선되었으면 하는 건의 등

5. **기타문제 및 욕구** : 첨부한 설문지 참조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견해

1. **학교폭력** : 근래 학교폭력 발생정도 및 심각성,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폭력을 사용하는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견해, 폭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 등

2. **왕따현상** : 발생정도 및 심각성, 왕따 경험(자신이 당한 경험, 자신이 남을 왕따한 경험), 왕따의 유형

3. **폭력대책** : 학교폭력 예방방안(제도적인 방안, 개개인이 폭력을 피하는 방법), 폭력가해 학생들에 대한 사후대책, 현재의 폭력대책에 대한 느낌(학교내의 선도대책,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보호관찰프로그램 등), 현재의 폭력대책이 효과가 별로 없는 이유 등

4. **욕구** : 가정생활에서 바라는 점, 학교생활에서 바라는 점, 국가, 사회에 대해 바라는 점, 보호관찰소에 바라는 점, 여가시간에 하고 싶은 것,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에게 바라는 점이나 조언

부록 3 : 면접사례⁵⁾

□ 사례 1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성별 : 여
2. 연령 : 만 15세
3. 신분 : 학생(정보산업고 1)
4. 비행명 : 폭력(학교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 1.3호
6. 보호관찰시작시기 : 1998. 04. 15 - 00. 04. 22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1. 성격적 특성 :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교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가졌으며, 친구들과 사이에서는 대장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쉽게 싫증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대상자의 다면적인성검사결과에 따르면 적응력이 좋으며, 자신의 일에 대하여 자신 만만해 하지만 계획성이 부족하고 충분한 생각을 하지 못해 끝맺음이 좋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비행경험 : 하루, 이틀정도 집에 알려지 않고 친한 친구집에서 잠을 잔 경험이 있으며, 여름에는 바깥에서 잠을 자는 등 단기 가출의 경험 이 있다. 가출한 동안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슈퍼에서 라면, 담배 등의 물건을 훔치기도 했으며,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과 싸운 경험도 가지고 있으나 법적인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5) 이 부분은 김영선·이미영(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위원)이 면접·집필하였음.

3. 폭력의식 : 학교후배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으며, 당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한 후배가 원망스러웠으나 지금은 말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잘못된 것 같다”라고 대답했다. 가끔 길거리에서 사건 피해자인 후배를 만날 경우 가볍게 인사를 하며 후배에게 미안한 생각이 든다고 한다.

4. 가정환경 : 대상자는 서울에서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과도하게 허용적인 양육태도 아래 성장하였다. 아버지는 전자회사에 근무하였으나 대상자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작업도중 머리를 다쳐 3년 동안 병원치료를 하였으며,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자는 “아버지가 다쳤을 때부터 방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의 사고가 자신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어머니는 가정주부로서 당뇨병이 심하여 건강이 안 좋은 편이며 아버지의 병간호를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어 대상자에게 관심을 거의 가질 수 없는 실정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아버지의 산재피해보상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머릿통증으로 고생하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마음이 아팠다고 한다.

대상자의 부모는 외동딸인 대상자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법적인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과 과잉 허용적인 양육태도로 대상자에게 영향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대상자는 부모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나 부모에게 방임된 상태에서 밤늦게 까지 친구들과 어울리는 등 불규칙적인 생활을 하였다.

5. 학교생활 : 정보산업고 1학년에 재학중이며 기초학력의 부족과 학습에 대한 흥미 부족으로 성적은 하위권이다. 가끔씩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받으나 이 부분은 거의 포기했다고 하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선생님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좋아 학교생활이 즐거울 때도 있다고 한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친구관계이며 학교생활

이 전반적으로 힘들지만 학교는 꼭 졸업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6. 유해환경 접촉 : 중 1때 선배의 권유로 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주량은 소주 2병 이상이며, 담배는 하루 반갑 이상 피우고 있다. 방과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오락실, 당구장, 노래방에 가서 놀기도 한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으며, 거의 모든 생활들이 친구들과 관련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은 3-4명 정도이며, 그 친구들과는 집안 이야기, 장래 계획 등 깊은 이야기를 하는 사이이다. 친구들과 어울려서 특별히 하는 일은 없으며 주로 공터나,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돈이 생기면 호프집이나 노래방을 가기도 한다.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친구도 3-4명이 있다.

2. 비행친구관계 : 친구 중 1-2명이 불량스러워 파출소에 가서 훈방 조치를 받은 적이 3-4회 정도 있다. 대상자는 집을 나와 생활 할 때 그 친구들과 숙식을 같이 하기도 하였으며, 슈퍼에서 물건을 같이 훔치기도 하였다. 또한 학교동료, 후배, 타학교 학생 등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 친구들과 함께 구타를 하기도 하였다.

3. 이성친구관계 : 남자친구는 근처학교 선배로 3-4명 정도였으며 지금은 어울리지 않고 있다. 이성친구와 본격적으로 사귄 경험은 없으며, 성경험은 없다. 이성으로 사귀고 싶은 사람은 중학교 선배로 지금도 같이 다니는 “날라리”같은 오빠이며, 같이 영화도 보고 놀러도 다니고 싶다고 한다.

4. 폭력행동 동조집단관계 : 다니던 중학교 내 폭력씨클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여학생이 7명, 남학생이 20명이 같이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주로 다른 학교 폭력씨클과 싸움을 벌이거나 무리를 지어 거리를徘徊하였다고 한다.

IV.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 언제 : 1998년 2월 10일
2. 어디서 : 학교근처 골목
3. 누구와 함께 : 학교 폭력씨클 가입 친구 4명
4. 누구에게 : 학교 후배
5. 어떻게 : 주먹으로 치고 발로 때려 전치 2주 진단을 받게 하였다.
6. 왜 : 학교후배가 대상자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평소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7. 폭력당한 학생 : 학교후배로 대상자가 속한 폭력 씨클에 가입하지는 못하고 언저리에서 폭력씨클을 동조하는 학생이다. 사고 직후 합의금 15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불하였으나 뒤늦게 경찰서에 신고해 법적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 부분에 억울한 감정도 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후배와 만나지 않고 있으며, 우연히 만날 경우 “안녕”하고 인사만 하고 지나간다고 한다. 화해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으며, 후배에게 미안한 생각은 들지만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8. 폭력행사가 발각된 과정 : 폭력사건 직후 합의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으며, 한참 지난 후 폭력을 당한 후배의 신고로 경찰이 동네에서 놀고 있는 대상자를 연행하러 왔다고 한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보호관찰관에 대해서 대상자는 “무서웠다”라고 표현하며, 보호관찰관이 자신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 잘 모르고 있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보호관찰관에게 바라는 것은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점과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신고서가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2. 범죄예방위원 : 범죄예방위원과 상담을 할 때 대상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마음이 안정되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다”라고 응답하였다. 자신의 내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 같으며, 무엇보다

다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 고맙다고 하였다. 범죄예방위원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싶으나, 상담과정 중에 숙제를 내주는 것은 부담이 된다고 한다.

3. 치우프로그램 : 대상자는 상담이외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없으며, 상담에 대해서는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치우 프로그램 중에 캠프를 가기 원하며,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강제적인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하였다.

4. 시설 : 보호관찰소까지 오는 교통이 불편하며, 보호관찰소 내부환경이 전반적으로 낡고 어두운 배경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반응을 하였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

교통의 불편-복지시설의 부족(매점, 오락실, 도서관 등)-보호관찰소 분위기-체육시설의 부족-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태도

2)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한 서비스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점심 제공-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취미활동 제공-체육시설 증진-필요에 따른 상담시간의 변동-신중한 보호위원의 선정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거짓말을 하거나 잘난 척 하며,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 하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한다고 한다. 이러한 학생들이 힘이센 선배나 잘 참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발견되어지면 폭력을 당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이는 서로에 대한 이해부족과 참을성 부족으로 생기는 것이며 요즘 학생들은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다고 한다.

2. 왕따현상 : 한 반에서 항상 왕따를 당하는 학생은 1-2명이 있으며,

1달가량으로 돌아가면서 불특정친구를 왕따 당하게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한다. 주로 왕따는 잘난척하거나, 공주병, 힘이 세고 싸움 잘하는 아이가 당하게 되며, 자신도 1달가량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이때 참을 수 없이 기분이 나빴다고 한다.

3. 폭력대책 : 학교에서는 학년을 따로따로 떨어져 건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며, 왕따당하는 아이들에 대한 선생님의 관심과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상담, 왕따 사실을 집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개개인이 폭력을 당할 경우에는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어른이 폭력을 자주 사용하면서 청소년의 폭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있으며, 어른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학교폭력대책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한다.

4. 욕구 : 부모님의 건강회복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과 선생님들의 폭력사용이 없어지고 공부에 흥미가 생겼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국가적으로는 물가가 내렸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으며, 보호관찰소의 교통이 좀 편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여가시간에는 운동을 열심히 해서 살을 빼고 싶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는 폭력보다는 대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다.

□ 사례 2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성별 : 남
2. 연령 : 만 17세
3. 신분 : 중 졸, 무직(검정고시 준비)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13호
6. 보호관찰시작시기 : 1998. 03. 26 - 00. 04. 03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1. 성격적 특성 :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쉽게 따라 행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자기중심적이며, 쉽게 짜증을 내며, 대인관계 형성시 통찰력이 부족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판단력과 지적능력의 부족으로 단순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잘 모르겠다”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자신의 성격과 외모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며, 기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편이나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순응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성격검사(코리안 테스트)결과 정서적 안정성이 매우 낮고, 책임성, 지배성, 자신감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2. 비행경험 : 하루정도 집을 나가 친구들과 집근처 거리를 배회한 경험 있으며, 친구들과 같이 오토바이를 훔치다가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험 있다. 대상자가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친구 옆에 같이 있었던 경험을 자주 가지고 있었으며, 친구들과 오락실에서 동네 꼬마들의 돈을 갈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폭력의식 : 다른 사람의 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와 “나도 맞으면 기분이 나쁠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폭력행사로 인해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폭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러나 친구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면 “자신도 같이 행동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한다.

4. 가정환경 : 대상자는 서울에서 1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하여 성장하였으며, 부모는 시장에서 과일가게를 해오다 3년 전부터 경기도 남양주에 과수원 3천평을 임대하여 배 농사를 하고 있다. 아버지는 주로 농장에서 거주하며, 대상자와는 거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사랑을 잘 표현하지 않는 엄한 분이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에게 따뜻하며, 간호사인 큰 누나도 자신과 친한 편이다. 그러나 장사

를 하는 작은 누나는 자신에게 간섭을 심하게 하여 자주 싸운다고 한다.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것이 없다고 하며, 가족분위기는 “다른 집처럼 평범하다”라고 표현했다.

5. 학교생활 : 학업성적은 거의 바닥이었으며, 시험 때는 가끔씩 공부를 하기도 했지만 성적이 거의 오르지 않아 많이 실망하고 힘들 때가 있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자신에게 공부에 대한 압력을 하지 않았으며, 무사하게 학교를 졸업하기만 원했다고 한다. 아침에 늦게 일어날 때가 많아 지각, 결석을 자주 하였으며, 마음에 내키지 않을 때는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학교를 나가곤 했다고 한다. 담임선생님이 비교적 자신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었으며, 자신은 학교 근처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즐거웠다고 한다.

6. 유해환경 접촉 : 친구들과 노래방, 오락실에 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며, PC방에서 게임과 채팅을 즐겨했다고 한다. 채팅은 이성과만 진행하였으며, 상대방의 외모(옷차림, 화장 등)와 각자 즐겨 노는 장소에 대해 정보를 주고 받았으며, 채팅을 통해 직접 만난 이성은 없었다고 한다. 혼자서 밤늦게까지 폭력비디오를 본 경험이 많으며 비디오의 주인공을 보면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한다. 또한 호기심으로 700서비스에서 폰팅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심한 성적인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대상자는 담배사용을 제외하고 술, 기타 유해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았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중학교 때 학교 주변에서 같이 배회하면서 어울린 친구는 6명 정도이며, 그 외의 시간은 혼자서 오락, 채팅 등을 하면서 지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친한 친구는 1명으로 현재 공고에 재학중이며, 만나면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며 학교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한

다. 그러나 자신이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으므로 대화가 잘되지 않고, 부러운 생각이 많이 들어 자주 만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어울리는 친구 6명은 학교도 거의 다니지 않고 동네나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낙인이 된 친구들이며, 나이가 어린 학생들을 때리는 일도 가끔씩 있었다고 한다.

2. 비행친구관계 : 친구와 같이 오토바이를 훔쳤으며, 나이 어린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친구들도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이 친구들에게 대상자는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였으며, 생각해보면 별로 친한 것 같지도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동네 나이 든 선배(21살)가 자신을 피어 남의 물건을 훔치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이성친구관계 : 이성친구를 사귄 경험은 한번 있었으며, “양아치”였다고 한다. 거의 날마다 만났으며, 만나서 노래방, 당구장을 자주 갔다고 한다. 이성친구와 재미로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고 한다.

4. 폭력행동 동조집단관계 : 대상자는 학교폭력씨클(일진)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3명 정도의 폭력씨클에 가입한 친구와 자주 어울렸다고 한다. 이 친구들과 학교근처에서 폭력을 행사할 때가 가끔 있었으며, 이 때 지나가는 학생들이 모르는 척하거나 구경할 때도 많았다고 한다. 대상자는 자신이 “폭력씨클에 가입할 정도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하였으며, 큰 싸움이 일어나면 마음속으로 흥미를 가지며 지켜보았다고 한다.

IV.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 언제 : 1997년 12월 29일

2. 어디서 : 상봉터미널 근처

3. 누구와 함께 : 학교 폭력씨클가입 친구 1명, 동네친구 1명

4. 누구에게 : 학교 후배

5. 어떻게 : 가방을 빼앗고 주먹질을 했다고 한다.

6. 왜 : 같은 학교 교복을 입은 약해 보이는 학생에게 돈을 빼앗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상자는 이 학생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으나 옆에 있던 친구들이 돈을 빼앗기로 합의하고 그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으며, 자신도 모르게 친구들과 같이 나이 어린 학생을 때리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은 남이 하면 그대로 따라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다.

7. 폭력당한 학생 : 나이가 어린 처음 보는 같은 학교 학생이었다고 한다. 앞으로 만날 일이 있으면 “미안하다”라는 말을 꼭 하고 싶으며,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8. 폭력행사가 발각된 과정 : 같이 폭력을 행사한 친구를 미행한 폭력 피해자 학생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었다고 한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보호관찰관의 표정이 매우 딱딱하여 쳐다보기가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또한 보호관찰관에게 바라는 것은 없으며 보호관찰관이 자신과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2. 범죄예방위원 : 범죄예방위원에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자신을 많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진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다. 특히 담배를 줄이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범죄예방위원과 상담과정 중에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였다.

3. 치우프로그램 : 범죄예방위원과 상담이외의 활동에는 참여한 프로그램이 없었으며, 특별히 보호관찰프로그램을 원하는 것은 없으며, 보호관찰소에서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4. 시설 : 특별히 불편하거나 원하는 부분은 없다고 한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

보호관찰소의 분위기-보호관찰소와 지역주민들과의 거리감-복지시설의 부족(매점, 도서관, 오락실등)-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태도-부족한 홍보

2)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한 서비스

법률문제 상담-교통편의 제공-청소년 적성검사-가족상담-청소년 진로상담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대상자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였으며,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그렇게 잘나지도 못나지도 않는 “중간에 속한 학생들”로 교실에 돌아다니면서 괜히 이것 저것 집적거리는(잡추고 다니는)학생이라고 한다. 폭력을 사용하는 학생은 문제아로 교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선생님에게 욕을 하는 행동을 하며, 힘이 세고 거칠다고 하였다. 학교 내에서 폭력은 주변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하게 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은 학교폭력에 대해 무관심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2. 왕따현상 : 왕따현상은 심각한 편이며, 자신은 왕따를 당하거나 해본 경험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자신이 왕따를 당할까봐 걱정은 했었으며, 주변에 노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안심했다고 한다. 왕따는 활발하지 못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당하며, 공부 잘하는 아이가 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왕따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저 공부나 열심히 하라”는 식으로 거의 언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3. 폭력대책 : 선생님들이 일진 폭력씨클의 학생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처벌을 하지 않고 모른 척 하는 경우가 있어 학교폭력이 생기는 것이라고 하며 이들에 대한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개개인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학교, 경찰서, 부모님에게 알려

도움을 청하는 것이 폭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였으며, 폭력을 심각하게 행사하는 학생은 제재조치나 전학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은 “있으나 마나 하다”며, 무엇보다 학교선생님들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4. 욕구 : 폭력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부모가 만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하며, 국가나 학교에서의 폭력문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대상자 자신은 보호관찰소에서 꾸준히 상담을 하고, 자신이 어떤 일을 확실히 하고 있을 때 폭력은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 사례 3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성별 : 남
2. 연령 : 만 17세
3. 신분 : 학생(공고 2)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 1.3호
6. 보호관찰시작시기 : 1997. 08. 22-1999. 08. 30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1. 성격적 특성 :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고개를 거의 들지 못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등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신의 체구가 왜소한 것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자신의 감정을 외부에 나타내기보다는 “마음속에 꼭꼭 쥌겨 두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욱하고 올라오는 성격을 가졌다”라고 스스로 표현했다. 대상자에 대한 그림검사나 성격

검사를 종합해 본 결과 정서적 안정성, 책임성, 지배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감이 낮게 나타났다.

2. 비행경험 : 친구와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훔친 경험이 있으며, 자전거 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가진 경험이 있다. 또한 오락실에 가기 위해 동네 놀이터에서 초등학생들을 때리고 돈을 빼앗은 경험이 있으며, 가출한 경험은 없다.

3. 폭력의식 : 대상자는 동네 초등학생에 대한 폭력사용에 대해 친구가 주도하고 자신은 거의 방관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법적인 체계를 받은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처음 폭력을 사용하여 돈을 빼앗았을 때는 일종의 쾌감을 가졌으나 시간이 지나 폭력을 당한 아이들이나 부모를 생각할 때 미안한 생각이 들었으며, 폭력이 대상자 본인의 인생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하였다.

4. 가정환경 : 대상자는 서울에서 막내로 태어나 성장하였으며, 단순 노동으로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과 형, 사촌누나와 생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한 편은 아니나, 부모님의 노력으로 보통의 수준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 부모님은 대상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지만 생활이 바쁜관계로 대상자와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으며, 대상자도 부모님이 자신에 대한 사랑을 알고 있다고 하였다. 형은 본인과 달리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사고도 치지 않는 모범생이라 거의 대상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는 편이며, 사촌누나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친한 사이라고 하였다.

5. 학교생활 : 성적은 하위권이며, 자신이 노력한 만큼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 화가 난다고 하였다. 이에 공부에 대해서는 포기한 상태이며, 가족들도 학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교에서는 눈에 띄이지 않는 생활을 하였으며,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한 폭력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러나 담임선생님과 반친구들의 묵인으로 심한 좌절감과

소외감을 느꼈으며,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울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6. 유해환경 접촉 :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 오락을 자주하며, 혼자 집에서 폭력비디오를 자주 보았다. 폭력비디오 장면에서 폭력의 피해자를 보면 자신과 같은 불쌍한 생각이 들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으며, 폭력의 가해자나 자신보다 더 악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고 한다. 주로 잘 어울리는 동네 친구들과 놀이터,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내기도 하며, 혼자서 비디오를 보면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다고 한다. 담배는 하루에 한갑 정도 피우며, 기타 약물사용은 하지 않았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동네친구 4명과 자주 어울렸으며, 이들은 모두 학교폭력의 피해자였다. 따라서 공원에서 만나 자연스럽게 가해자들에 대한 원망과 욕을 하는 것으로 대화를 하였으며, 스스로 “모두 바보 같은 친구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들은 자존심이 상하는 아픈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했으나 대상자는 이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 오락을 하거나 비디오를 보는 것이 더 즐겁다고 하였다.

2. 비행친구관계 : 대상자의 친구는 동네 친구 4명이 전부이며, 대상자와 같이 자전거를 절도하여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다. 이 친구들은 모두 학교에 다니고 있으나 대상자와 유사한 특성으로 학교생활 적응에 힘들어하고 있다.

3. 이성친구관계 : 학생인 이성친구를 사귀는 경험은 있으나, 여자아이는 힘이 세고 키가 큰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과 같은 스타일은 싫어해 오래 사귀어 본 경험은 없다고 하며, 성경험은 없다고 한다.

4. 폭력행동 동조집단관계 : 학교폭력 씨클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었으며, 대상자가 학교폭력에 시달렸을 때 반 친구들은

대부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묵인했다고 하였다. 이에 심한 좌절감을 가지게 되었으며, 자주 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고 한다. 자신이 동네에서 초등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을 때는 지나가는 어른이 있었으나 무관심하게 지나쳤으며, 본인 역시 “그럴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다고 한다.

IV.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 언제 : 1999년 6월

2. 어디서 : 동네 놀이터

3. 누구와 : 동네 친구 4명

4. 누구에게 :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동네 초등학생 4학년

5. 어떻게 : 발로 차고 주먹질을 했다.

6. 왜 : 그 초등학생을 놀이터에서 몇 번 본 경험이 있었으며, 체구가 왜소하고 약해 보여 반항을 잘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대상자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도 한번 남을 때려보자”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다고 한다. 때리는 그 순간 자신의 폭력가해자에 대해 복수하는 심정이었다고 한다.

7. 폭력을 당한 학생 : 초등학생은 4학년 보다 체구가 작아 보였으며, 놀이에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노는 아이라고 하였다. 폭력 행사 후 길거리에서 본적이 있으며, 미안하고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으며, 멀리서 그 아이가 보이면 먼저 피해간다고 하였다.

8. 폭력행사가 발각된 과정 : 피해자의 어머니가 신고를 해서 발각이 되었으며, 그 놀이터에서 경찰에게 잡혔다고 한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친절하게 해주는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 자기일만 하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힘들었다고 한다. 많은 분들이 계셔서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형식적인 예, 아니오 만 대답하게 하는 질문보다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해주었으면 한다.

2. 범죄예방위원 : 친절하고 자신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생각하도록 해주어 좋다고 한다. 자신은 상담을 하면서 말을 잘하게 되었고 사람들을 많이 접내는 습관이 조금씩 버려져 가는 것을 느낀다고 한다.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으며,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 무척 좋다고 한다.

3. 처우프로그램 : 상담 외에는 해당하는 처우프로그램이 없으며, 보호관찰소에서 더 많은 대상자를 상담하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과 학교 생활(시험기간)로 상담시간이나 보호관찰 출석일을 정확히 지킬 수 없을 때 이해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4. 시설 : 기다리는 동안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많았으면 하는 바램과 음악이나 건전한 비디오를 감상할 수 있는 대기실이 넓게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

복지시설의 부족-체육시설의 부족-보호관찰소 분위기-부족한 홍보-교통의 불편

2)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한 서비스

더 많은 보호관찰소 직원 확보-체육시설의 증설-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취미활동 제공-청소년 진로상담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심각한 편이며, 거의 날마다 누가 누구를 때렸다는 소문을 돌었으며, 본인 역시 2주일에 1회 이상은 폭력을 당했다고 한다.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허약하거나, 자기주장 없이 이용을 당하거나 꺼병한 아이들이라고 한다. 가해자는 몇십명씩 몰려다니며 학교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고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아이들이라

고 한다, 학교폭력이 심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협박을 하거나, 이야기한 사실이 알려지면 더 심한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계속된다고 하였다.

2. 왕따현상 : 남자학교는 왕따보다는 자신과 같이 허약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아이들에게 폭력을 많이 사용하며, 자신은 2주일에 1회 이상 반에서 노는 아이, 학교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이유도 모르고 학교 뒷 건물에서 폭력을 당했으며, 돈을 빼앗겼다고 한다. 이때 대상자는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초라해서 “죽고싶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선생님들의 무관심과 때리는 아이들에 대한 두려움과 자존심이 상해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못했다고 한다.

3. 폭력대책 : 학교폭력방안에서는 어떠한 것도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선생님과 친구들이 폭력을 방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에 어렸을 때부터 폭력의 부당성에 대해 가르쳐야 하며, 폭력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학교에서의 약자가 생활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학교선생님이나, 친구들이 공부를 잘 하지 못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고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개개인이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처럼 바보같이 끔찍거리지 말고 맞대응을 하던가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학교폭력은 대책방안이 나온 후에도 그전과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줄어들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며, 이는 말만 거창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욕구 : 폭력이 사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자주해서 자녀에 대한 고민을 알아야 하며,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반학생들 중 자신과 같은 아이를 따돌리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 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국가나 사회, 보호관찰소에서는 폭력가해 학생들에게 강력한 처벌과 교육, 상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폭력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며,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이 많으면 자신과 같이 놀이터에서 동네초등학생을 때리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한다.

□ 사례 4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성별 : 남
2. 연령 : 만 19세
3. 신분 : 중졸(고등학교 검정고시 준비 중)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 1.3호
6. 보호관찰시작시기 : 1997. 11. 27 - 1999. 12. 04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1. 성격적 특성 : 친구들과는 활발하게 어울리고,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낯선 사람이나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을 보면 침울하거나 조용해지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대상자는 외부 환경에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기제를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대상자의 심리검사 결과에 따르면 완벽해야 한다는 정서적 강박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의식이 지나치게 높다.

2. 비행경험 : 하루, 이틀정도의 가출한 경험이 몇회 있었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호프집을 가거나 만화가계에서 밤을 새웠다고 한다. 가출하거나 마음이 괴로울 때 무슨 일을 저지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많았으며, 이러한 순간 자신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물건이 있을 때는

발길질을 하거나 던져버린 경험이 있으나 보호관찰은 이번이 처음이다.

3. 폭력의식 : 대상자는 상대방이 계속 시비를 걸면 “폭력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자신의 폭력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지금도 별로 잘못했다는 생각은 없다고 한다. 대상자는 폭력을 사용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자신이 대단하게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으며, 처음 폭력을 사용하고 그런 기분을 느낀 후 계속적으로 폭력이 사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다고 하였다.

4. 가정환경 : 대상자는 서울에서 태어나 막내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성장하였다. 부모님은 숙녀복 의류를 제조하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다. 형은 휴학 후 군에 입대하였으며 “무척 잘 난 사람”이라고 하였다. 부모님은 초등학교 때부터 형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였으며, 이때 자신은 항상 못난 자식이었다고 한다. 특히 아버지는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엄격하여 귀가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학교성적을 지나치게 강조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상자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 형과의 비교에서 좌절감으로 바깥으로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5. 학교생활 : 공부는 중간정도 하였으며, 선생님들도 비교적 자신을 귀여워 해 주는 등 평범한 학교생활을 하였으나, 공부를 해도 성적이 별로 오르지 않고 아버지의 성적에 대한 기대와 형과의 비교로 더 이상 노력도 하기 싫어졌으며, 학교를 조퇴하거나 부모님 몰래 지각을 하며 자연스럽게 불량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불량친구들이 자신을 끼워 주지 않아 맛있는 것을 사주거나, 오락비를 대신 내는 등 친구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6. 유해환경접촉 : 단란주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으며, 나이트클럽, PC방을 자주 가는 편이라고 한다. 그곳에 가면 머리아픈 학교나 집 생각이 자연스럽게 잊혀져 좋았으며,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자아이들과 밤늦게 어울린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한다. 폭력비디오와 야설을 즐겨 보았으며, 폰팅을 해본 경험이 있으며, 폰팅은 몇번 해본 결

과 지나친 음담패설을 하는 자신이 너무 우습게 보여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술은 1주일에 3회 정도하며, 담배는 하루에 반갑 정도 피우며, 기타 약물사용은 하지 않았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자주 어울려 다니는 친구는 6명 정도이며, 깊은 속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라고 한다. 친구는 그냥 같이 어울려 즐겁게 노는 사이이며, 누구도 자신의 문제나 이야기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친구들과는 호프집이나 오락실, PC방을 자주 간다고 하였다.

2. 비행친구관계 : 폭력과 절도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친구가 3명 있었으며, 친하게 지냈다고 한다. 이들은 가정형편이 어려웠으며, 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해 용돈을 많이 타 그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도 했다고 한다. 대상자는 친구들과 패싸움을 벌린 경험이 있으며, 돈을 빼앗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3. 이성친구관계 : 이성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이 많으며, 모두 착한 학생이었는데 “자신 때문에 망가졌다”라고 하였다. 여자친구들이 스스로 폭력행동 등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은 들지 않는다고 하며, 성경험은 여러 번 있다.

4. 폭력행동 동조 집단관계 : 자신은 학교에서 폭력씨클이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이는 몰려다니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지나가는 아이들을 건드리는 무리들을 어른들이 부르기 좋게 만든 이름이라고 하였다. 대상자가 길거리에서 친구들과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사람들은 피해가는 경향이었으며, 학교 내에서는 지나가는 아이들이 흥분을 하면서 폭력에 동조를 하는 무리가 있는 반면, 말리는 무리도 있다고 했다.

IV.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 언제 : 1997.10월
2. 어디서 : 학교근처 커피전문점
3. 누구와 : 같이 어울려 다니던 친구 3명
4. 누구에게 : 처음 본 학교선배 무리들
5. 어떻게 : 가게 기물을 던지고, 발로 치는 등 패싸움을 벌였다.

6. 왜 : 여자친구와 친구 3명이 이야기를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건너편에 앉아 있던 선배들이 다가와 시비를 걸었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 더 자존심이 상해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화가 나면 자신은 잘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물건을 던져서 해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그런 행동이 일어났던 것 같다고 한다.

7. 폭력을 당한 학생 : 같은 학교선배인 것 같으며, 처음 보는 날라리 같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대상자의 여자친구에게 손짓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대상자가 먼저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지금도 그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다. 상대방에게 사과할 생각은 전혀 없으며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며,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도 없다고 한다.

8. 폭력행사가 발각된 과정 : 커피전문점 주인이 신고를 하였으며, 싸움을 하는 동안 경찰에게 잡혔다고 한다. 대상자는 길거리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아무도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가게 주인이 가게기물이 파괴되는 등 자신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생겼기 때문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가게주인에게 분노가 있으며, 친구들과 같이 그 가게에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사건이 더 커질 것 같아 참았다고 한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무서운 느낌이며, 몇 몇 잘해주는 보호관찰관에게는 편안함을 가지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관찰관이 자신을

지나치게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어 기분이 나쁜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2. 범죄예방위원 : 상담과정 중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어서 고맙다는 표현을 했으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범죄예방위원이 행동수정이나 검정고시준비를 위해 숙제를 내줄 때는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많이 부담이 된다고 하였다.

3. 치우프로그램 : 대상자는 사회봉사와 상담프로그램에 참가하였으며, 사회봉사는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했다고 한다. 사회봉사를 하면서 힘들었지만 불쌍한 사람이 많다는 생각을 했으며 자신이 건강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상담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을 다루고 싶으며, 검정고시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많이 받고 싶다고 하였다.

4. 시설 : 여름에는 개별상담실이 너무 더워 힘들다고 하며, 에어컨이 들어 왔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

너무 잦은 상담-부족한 홍보-보호관찰소 분위기-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교육부족-보호관찰소 직원의 부족

2) 보호관찰에서 필요한 서비스

청소년 진로상담-직업상담-더 많은 보호관찰소직원 확보-법률문제 상담-사회서비스정보제공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견해

1. 학교폭력 : 대상자가 다녔던 학교에서의 폭력은 그저 쫓겨다니는 아이들이 몰려다니며 장난으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수준이었다고 한다. 주로 폭력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 아이, 선생님에게 고자질하

는 아이들이 성질이 고약하거나 힘이 센 아이들의 피해자가 되기 쉬우며 가만히 있어도, 고자질해도 폭력을 당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법을 무서워 하지 않아서이며, 폭력행위에 대해 선생님, 친구, 법 등에 발견되어 처벌을 받을 때보다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2. 왕따현상 : 대상자가 다녔던 학교는 왕따문제가 폭력으로 나타났으며, 바보같은 아이, 말없고 공부 못하는 아이, 힘없는 아이가 왕따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3. 폭력대책 : 폭력에 대한 모든 대책방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으며, 폭력사건이 발견되면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법적 제재만이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하며, 자신도 분류심사원에서의 수용 경험 등이 두려워 폭력을 사용하고 싶을 때도 꼭 참을 때가 있다고 한다.

4. 욕구 : 폭력이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공부로만 자식을 평가하지 말고, 자녀들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에서는 공부잘하는 아이만이 사람으로 대우받는 풍토가 사라져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국가, 사회, 보호관찰소에서는 폭력사용에 대한 법적 처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한 후 학교와 학생, 부모님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노래방, 당구장 등이 많이 생기면 청소년 폭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하였다. 폭력을 당하는 친구들에게는 맞지만 말고 같이 싸워 자신도 힘이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것이 좋다고 하였다.

□ 사례 5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성별 : 남
2. 연령 : 만 16세

3. 신분 : 공고 1 재학중
4. 비행명 : 폭력(학교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 13호
6. 보호관찰기간 : 1998. 5. 29 - 2000. 6. 5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

1. 성격적 특성 :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격을 가졌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이 별로 없다. 친구들과 있을 때는 자신이 우두머리 역할을 해야만 마음이 편해지며, 자기 주장이 강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자신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지적인 사고 능력은 좋은 편이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자신감이 높아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가 건강하고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비행경험 : 가출, 절도 경험은 없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먹다 싸운 경험은 가끔 있었다.

3. 폭력의식 : 폭력사용으로 인해 경찰서에 다니고, 보호관찰처분 받는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가 친구들 앞에서 심하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법적인 처분만 받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폭력사용에 대해 한번도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다. 폭력을 사용할 당시에는 친구들 앞에서 우쭐한 생각이 들었지만 나중에는 창피한 생각이 들었으며, 폭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4. 가정환경 : 대상자는 막내로 서울에서 성장하였으며, 전문직의 아버지와 주부인 어머니의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았다. 부모님은 대상자가 원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편이었으며 자녀들의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분이였다. 경제적으로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가정이라면 “편안함”을 먼저 떠올린다고 하였다. 형과도 사이가 좋은 편이며, 비슷한

또래라 고민이 있으면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5. 학교생활 : 중 1때까지는 공부를 잘하였으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성적이 급격히 떨어지게 되었고 공부보다는 노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부모님은 공부보다는 자신이 학교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히는 것을 더 두려워했으며, 여러 가지 문제(지각, 조퇴, 무단결석 등)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세심한 것까지 배려를 해주셨다고 한다. 학교 생활에서는 공부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돌아다니는 것이 훨씬 즐거웠다고 한다.

6. 유해환경접촉 : 대상자는 나이트클럽이나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취미이며, 음란만화나 폭력비디오를 보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였다. 화양리에서 돈을 주고 여자와 자 본 경험이 있으며, 700 서비스 폰팅을 통하여 30대 주부와 야한 농담을 즐겨보기도 했다고 한다. 1주일에 3회 이상 술을 마시고, 담배는 하루에 한갑정도 피워 보았으며, 나이트클럽과 단란주점에서 히로뽕을 접할 기회가 있었으나 거부했다고 한다. 또한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알게된 조직폭력 대원으로부터 조직가업을 권유받았으나 생각하기에 자신은 아직 어린 것 같아 거절했으며, 그 일대 나이트클럽을 다시 가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친구들은 8명 정도로 학교에서 모두 잘 나가는 아이들이며, 거의 매일 같이 붙어 다닌다고 한다. 밤에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가 있어 그곳에 자주 술을 먹으러 다니며, 학교에서는 수업을 무단 조퇴하고 PC방이나 비디오방에 자주 간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들이 있으면 점심시간이나 체육시간을 이용해 학교 뒷 건물에서 “손을 봐주곤 했다”고 한다. 친구 8명은 의리가 있고, “남자들 세계에서 의리는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반응했다.

2. 비행친구관계 : 폭력으로 인해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친구가 4명이

있으며, 강도, 상해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친구가 2명 있다. 친구들 중에서 오늘 무엇을 하자, 누구를 손봐주자고 할 때는 의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행동했다고 한다.

3. 이성친구관계 : 진지하게 이성을 사귀어 본 경험은 없었으며, “여자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성과 쉽게 성관계를 가졌으며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경험도 있었다.

4. 폭력행동 동조집단관계 : 대상자는 학교폭력써클이 정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몰려다니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으며, 일진 이진은 부르기가 쉬어서 붙여진 명칭이라 했다. 대상자가 친구들과 함께 학교폭력을 행사할 때 학생들은 대부분 모르는 척 했으며, 어떤 학생들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다고 했다. 선생님들은 자신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으며, 공부하는 분위기를 방해만 하지 않으면 어떠한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IV. 보호관찰 받게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 언제 : 1998년 3월

2. 어디서 : 학교 근처 PC방

3. 누구와 :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자

4. 누구에게 : 초등학교때 친구

5. 어떻게 : 발로 치고 때려서 전치 6주 진단을 받게 함

6. 왜 : 우연히 만난 초등학교 친구가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짹죽거리고 다닌다”면서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친구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과 가만히 있으면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할까봐서 그대로 주먹이 날아갔다고 한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가 쓰러질 때 자존심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다고 하며, 자신은 친구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한다.

7. 폭력을 당한 학생 : 옛날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미안한 생각도 들었지만 별로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등학교 동창은 다른 중학교에서 노는 아이며, 화해는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단지 법적인 처분만이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한다.

8. 폭력행사가 발각된 과정 :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신고를 해서 경찰에게 잡혔으며, 후에 길거리에서 대학생을 우연히 만났으나 모르는 척 했다고 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에게 가서 한 대 박고 싶었으나 법적인 처분이 두려워 그만 두었다고 한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보호관찰관은 대상자에게 거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투박하고 인색해 보인다고 하였다. 보호관찰관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며, 단지 보호관찰소에 나오는 자체가 짜증이 날 뿐이라고 하였다. 형식적인 질문과 면담보다는 진정한 관심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과 보호관찰소 직원이 좀 상냥하게 대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2. 범죄예방위원 : 범죄예방위원은 자신을 착하게 만들어 주며, 진정한 친구에 관해서 생각하게 해 준다고 했다. 자신이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준 사람이 부모님과 상담을 해 주는 범죄예방위원이라고 응답했다.

3. 처우프로그램 : 상담이외에는 참가한 프로그램이 없으며, 대상자들을 위한 여러가지 심성훈련 프로그램이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상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보호관찰소에 오는 것이 덜 힘이 든다고 한다.

4. 시설 : 보호관찰소에 오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서 힘이 든다고 하였으며, 시설이 너무 좁고 낡아 불편하다고 한다. 점심시간에 보호관찰소에 왔을 때 점심을 먹을 공간이 부족하고 매점도 부족해 불편하며, 기다리는

시간에 달리 할 일이 없어 심심하다고 응답했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 : 상담시간의 부족-교통의 불편-너무 긴 통근시간-보호관찰소 분위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태도

2)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한 서비스 :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점심 제공-교통편의 제공-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취미활동 제공-필요에 따른 상담시간의 변동-다양한 집단활동의 제공

VI. 학교폭력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학교폭력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남의 돈을 빼앗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하였다. 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의 특성은 공부를 잘하여 선생님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이, 개인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며 이들을 자존심이 강하고, 머리회전이 빠르며 집단으로 다니는 아이들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폭력은 은폐되면서 몰래 이루어지거나 선생님들이나, 반 친구들이 알면서도 자신들에게 피해가 올까봐 묵인을 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2. 왕따현상 : 왕따는 여자학교에서 많이 일어나며, 잘난체 하고 친구끼리 의리없이 행동하는 아이들이 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아이들은 왕따를 당해도 펜찮으며 억울하면 상대방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폭력이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3. 폭력대책 :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폭력학생들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선생님들이 학교폭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개개인은 폭력을 당할 때 “싫다”라는 자기 의사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며, 경찰서나 학교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폭력가해자를 법적인 처벌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이들에 대한 집중교육과 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현재의 폭력예방대책은 일회적인 행사가 많은 것 같으며, 이는 학교가 “잘난 학생”중심이라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와 같은 학생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욕구 : 폭력문제가 없어지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폭력이 나쁘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하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차별대우가 없어져야 하며, 폭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을 했다. 또한 국가와 사회에서는 폭력의 가해자, 피해자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야 하며, 보호관찰소에서는 상담을 강화해 폭력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가시간에는 도자기 박살내기 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 사례 6

I. 대상자의 기본 특성

1. 성별 : 남
2. 연령 : 만20세
3. 신분 : 직장인(기술직 보조)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 1.3호
6. 보호관찰시작시기 : 1997. 08. 14 ~1999. 08. 21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1. 성격적 특성 : 온화하며 인정있고 동점심이 많은 편이나, 순간의 분노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며, 충동적인 개입으로 손해를 볼 때가 많으며, 인내심이 부족하여 끝까지 일을 해내지 못하고, 친구들 사이에서나 사

회생활에서 싫어도 싫다는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 즉,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대인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쉽게 동조하고, 책임감 없이 행동하는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2. 비행경험 : 폭력으로 법적인 보호관찰처분이 3번째로, 각각 처분(보호관찰)이 끝나갈 무렵 다시 폭력재범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게 되었다. 처음 보호관찰처분은 고1때 평소 못살게 굴던 학교선배 2명을 친구와 때려주고 난 후 선배들이 보복을 하려고 찾아와 패싸움을 하다가 받게 되었으며, 그 해 가을 2주정도 가출을 하여 친구들과 선배들 집을 하루씩 전전하며 당구장, 노래방, 술집 등에서 놀다 돌아온 경험이 있다. 두 번째 보호관찰처분은 다른 학교 학생들과 패싸움에 휘말려 받게 되었으며, 학교에서 자퇴처분을 받고 울적하여 가출을 하였다. 세 번째 보호관찰처분 역시 집단폭력을 행사하여 받게 되었으며, 그 외 대상자는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는 등 폭력과 관련된 상당한 비행경험을 가지고 있다.

3. 폭력의의식 : 학교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선배들을 혼내주려는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 된 폭력이 자꾸 되풀이되면서 많은 후회가 생긴다고 한다.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어 욕하고 치미는 화에 폭력을 휘두르게 되고 집에 와서는 잠이 안 온다”고 한다. “저지른 일 때문에 집안 식구들에게 걱정과 피해를 주게 될 것이고 주변사람들에게 이미지도 나빠질 것이 우려가 되며, 특히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충격을 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다”라고 한다. 모친의 사망 후는 자포자기가 되어 도저히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며, 현재는 과거 자신이 폭력을 행사했을 것 같은 상황이 있을 경우 차라리 “맞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쉽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을 참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꼭 참아야한다고 생각하며 취중에도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서 의식적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긴장을 늦추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자는 자신의 폭력행사에 대해 “어떤 상황에서 돌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계획적인 것은 거의 없었다”고

하며, 자신의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었으며, 정신적, 물질적으로 심한 타격을 가져다 준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4. 가정환경 : 대상자는 서울에서 건축업을 하시는 아버지와 신부전증으로 평소 몸이 안 좋으셨으나 온화하고 자상한 어머니 아래서 비교적 어려움 없는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며, 공부는 썩 잘하지 못했지만 불임성있고 착한 아이로 학교생활에도 잘 적응하는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머니는 건강이 악화되어 대상자가 초기 비행에 빠져들고 있던 18세 때 돌아가셨으며, 어머니의 사망 후 아버지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고, 술만 드시면 화를 자주 내시며 대상자에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주는 등 가정환경이 역기능적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대상자는 자신의 비행으로 인한 실망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신 것 같아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는 새어머니 되실 분이 계시며, 자신과 관계가 좋으며 새어머니가 어머니의 역할을 충분히 해서 빨리 가정이 화목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현재 고 3인 동생과는 사이가 좋으며, 아버지의 사업도 안정을 찾았고 본인도 올해 자동차 정비소에 취직이 되어 약 9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등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5. 학교생활 : 공고 야간 1학년 중퇴로 자퇴 전까지는 학교 생활이 아주 즐겁고 좋았으나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 폭력을 행사한 관계로 자퇴를 당하였으며, 복학을 위한 집안 식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퇴과정에서 보여주신 담임 선생님의 폭력적(따귀)처벌과 폭언으로 계속되는 배타적 태도와 무시에 스스로 복학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때부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절망적이 되었으며, 친구와 술,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고 한다. 자신을 인격적으로 모욕을 준 담임선생님께 비굴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싶지 않았으며,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무척 아쉽게 느껴져 방송 고등학교라도 입학해 볼 생각을 간절히 하고 있다.

6. 유해환경 접촉 : 중 3때 친구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사이에 친구와 소주 2병을 나눠 마신 뒤 그때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현재는 주량이 소

주 2병이고, 담배도 하루 1갑 정도를 하고 있으며, 기타 약물사용경험은 가지고 있지 않다. 야간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과정에서 노래방, 당구장, 비디오방 등을 본격 출입하게 되었다. 술집은 고 1때 선배들이 처음 데려 갔으며, 그 후 술을 거의 매일 마셨으며, 술을 먹은 상태에서 비디오방이나 노래방을 갔다고 한다. 대상자는 “중·고등학교의 신분에서는 당구장, 노래방 정도의 출입은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며 술집은 안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술집을 자주 출입하다 보면 “술의 양이 늘고, 술이 취한 상황에서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등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한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당장 신상에 무슨 일이 있어 연락해야 한다면 8명 정도를 모을 수 있으며, 그 중 속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는 친구는 2~3명 정도”로 그 친구들과는 주로 술집 등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집안문제 등을 상의한다고 한다. 노래방보다는 당구장이나 술집을 선호하는 편이며, 친구들이 하는 일은 대학 재학중인 친구도 있고 직장에 다니는 친구도 있다고 한다.

2. 비행친구관계 : 폭력으로 1~2회 전과를 가진 친구가 2~3명 있으며, 현재 회사에 다니는 친구는 대상자의 비행시기에 소속된 집단이 없었던 공통점으로 서로 어울려 다기도 했으며, 같은 폭력 건으로 두차례 처벌되기도 했다. 이 친구들과는 주로 술을 먹으면서 같이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끼리 어떤 일에 대해 집단적으로 같이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3. 이성친구관계 : 중 3때부터 친구소개나 놀러 다니면서 사귀어 본 여자친구가 5명 정도 있으며, 이성친구들의 연령은 본인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 동갑인 경우 등 다양했으며, 현재는 1년 반정도 지속적으로 사귀는 한살 많은 미용사 여자친구가 있으며, 자신에게 많은 힘이 된다고 한다.

성경험은 중 3때 처음 경험하였으며,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낙태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여자친구와는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으며, 그 친구를 존중해 주고 싶고 장래를 약속하고 싶은 여자라고 한다.

4. 폭력행동 동조집단 관계 : 폭력 씨클이나 집단에는 가입하지 않았으며, 그런 집단이 우습게 보였다고 한다. 자신은 “학교에서 약간 노는 친구 5-6명 정도와 어울려 다니다 술 먹고 사소한 시비 끝에 싸움이 나서 폭력을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학교에서 나오니 갈 데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다니다 보니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만나게 되어 더욱 상황이 나빠지게 되었다”고 한다는 것이다. 대상자가 폭력 행동을 거리에서 하고 있을 때 주민들이 신고를 했으며, “만약 자신이 그런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한다면 또 다시 휩쓸릴까 두려워 아예 외면하고 피하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다.

IV.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가해 정황

1. 언제 : 1997년 8월 13일

2. 어디서 : 동네에서 길 가던 중

3. 누구와 함께 : 친구, 후배 등과 함께

4. 누구에게 : 지나가며 시비 걸던 3명의 청소년들 중 1명

5. 어떻게 : 주먹으로 가슴을 때린다는 것이 상대의 코에 맞아 코뼈를 부러뜨렸다.

6. 왜 : 상대편과 대상자의 친구사이에 싸움이 붙어 옆에서 말리던 중 손을 잡았는데 상대가 먼저 주먹으로 한 대 치고 도망을 갔으며, 화가 갑자기 욱하고 치솟아 이성을 잃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자신은 잘 참지 못하였으며, 인생에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다시 폭력을 같이 사용한 것 같다”라고 당시의 마음을 설명했다.

7. 폭력을 당한 학생 : 모르는 학생으로 대상자에게 맞아 코뼈를 다쳤으며, 그후로는 다시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피해학생에게는 미안한 생

각도 있으나, 사건으로 인한 물질, 정신적 피해가 커 야속한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한다.

8. 폭력 행사가 발각된 과정 : 이전의 폭력 건으로 보호관찰중이라 바로 도망을 갔으나, 동네 주민의 신고로 같이 있었던 후배가 파출소에 잡혔으며 자신도 파출소에서 찾아와 연행 되었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대상자는 보호관찰관들에 대해 “존댓말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너무나 말을 막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느끼게 해요”라고 했으며,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에게 바라는 점은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우리를 보호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범죄자로 몰고 가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우리의 시간도 귀중하게 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라며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3번이나 직장을 잃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라고 응답했으며, 보호관찰관의 비인격적 대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2. 범죄예방위원 : 상담실의 선생님과 상담시간은 마음이 무척 편하여 무엇이든지 솔직하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 좋다고 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고 가족처럼 걱정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 어렵게 문신제거 시술 스케줄을 잡아 주었는데 본인의 나태함으로 병원에 못 가서 결국 기회를 잃게 되어 무척 죄송했고, 가끔 과제물을 성의 있게 해오지 못하고 약속 시간을 어긴 것이 미안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림을 그리고 이것저것 질문 작성하는 것이 형식적인 테스트가 아닌가 하여 거부반응이 생겼으나 선생님과 상담 횟수가 많아지면서 그런 의심이 나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마음을 여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된 것도 사실이다”며 범죄 예방위원의 상담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3. 치우 프로그램 : 봉사과 심부름, 상담이외에는 별다른 프로그램을

받아 본 적이 없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다 하더라도 직장 등 사회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것 같아 참여 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시간이 된다면 같은 유형의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과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 해보고 교육도 받으며, 함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볼 집단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면 참가 해 볼 의지도 있다고 한다.

4. 시설 : 교통이 불편하고, 건물이 수용시설 같은 분위기라 올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별로 정감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반응하고 있다..

5. 기타문제 및 요구

1) 보호관찰소의 가장 심각한 5가지 문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태도-교통의 불편-보호 관찰소의 분위기-보호관찰 대상자와의 인간관계 부족-보호 관찰소와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감.

2)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한 서비스

신중한 보호위원의 선정-필요에 따른 상담시간의 변경- 사회 서비스 정보 제공-내실있는 수강명령-다른 사회사업기관과의 연결

VI. 폭력 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자나 피해자 측 모두 문제가 있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으며,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명칭하거나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행하는 쪽은 힘을 과시하고, 자기 영역을 표시하느라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한다. 모든 것이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으며, 서로 당당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어려운 친구는 서로 보호해주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단체 생활에 임하면 학교폭력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한다.

2. 왕따현상 : 한 반에 1명 정도는 꼭 있고 “그 애들은 스스로 명칭하

게 자신감 없이 행동하고 자신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언행을 함으로써 친구들에게 얹잡아 보이거나 따돌림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라고 하며, 이때 선생님은 강압적이기보다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아이들과 스스로 없이 어울려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며, “선생님들도 폭력배 이상으로 체벌을 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뺨이나 뒤통수 등을 맞으면 정말 비참해지는 기분이 드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덧붙이고 있다.

3. 폭력 대책 : “보통 자신이 당하는 것을 보복이 두려워 얘기를 못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당당하게 대항하여 대화를 하거나 만만치 않다는 느낌을 상대에게도 심어줘야 괴롭힘을 안 당하며, 힘이 없으면 애초에 도움을 주위에 요청하여 되도록 빨리 폭력을 당한다는 사실을 개방하는 것도 방법이 된다”라고 응답하였다. “자꾸 주변에 폭력사실을 알리면 폭력을 가하는 학생들도 귀찮아 안 건드리기도 하는데 여하튼 만만히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선생님들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심각하며, 특히 뺨을 맞게 되면 청소년시기의 아이들은 반성하기보다는 무척 분개하는 마음이 들어 또 다른 폭력행동으로 화풀이를 할 소지가 있다고 한다.

4. 욕구 : 폭력이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빨리 새어머니와 합쳐 할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동생도 대학에 잘 들어가고 아버지와 관계가 많이 좋아지고는 있지만 좀 더 개선 되고, 본인도 어서 과거의 잘못된 일을 잊고 삶에 희망을 갖게 되어야 한다고 반응했다. 그래서 잃어버린 시간과 손상된 이미지, 경제적인 모든 면을 회복하고 성인으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그리고 다시는 폭력이 행사되는 상황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바램이 제일 크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학생들을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내몰지 않았으면 한다고 한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도태된 아이들은 또 다른 폭력 사회에 노출되기는 너무 쉽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에서도 한번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들을 좀더 포용하여 체벌과 감시로 낙인을 찍기 보다

는 외톨이가 안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다.

□ 사례 7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징

1. 성 별 : 남
2. 연 령 : 만 18세
3. 신 분 : 무직(기술 수련 중)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 관찰 1. 3호
6. 보호관찰 시작시기 : 1998.04.24 - 00.04.31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1. 성격적 특성 : 활발하고 불임성, 사교성 좋으나 무책임하며 다소 모험적, 충동적 성향이 있으며 남을 잘 신뢰하지 못하며 남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적 경향이 있음이 다면적인성검사와 그림검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해 하며 자신의 비행에 대해 반성과 세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성향으로 내면적 변화가 많이 이루어진 듯 해 보인다.

2. 비행경험 : 뺑치기가 주특기로서 지금까지 중학교 때부터 9차례에 걸쳐 “뺑치기를 주로 해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창피해요”라고 한다. 주로 친구들 3-4명이 몰려다니며 하게 되고, 혼자서 한 경험이 있다. 주로 돈을 뺏으며, 좋은 물건(신발, 옷, 가방, 악세사리, 전자제품 등)을 사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가장 많은 액수를 빼앗은 것은 10만8천원이고, 순순히 굴복하지 않는 상대에게는 폭력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것은 거의 유흥비가 목적이고 다른 방법 보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인식하고 있다.

3. 폭력 의식 :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게 되면 사소한 시비에도 폭력이 사용되는 수가 있고, 뺑치기를 할 때 대상자를 고르는 방법을 물어보니 대상자는 “옷 잘입은 아이들, 어리숙하고 만만한 보이는 애, 나보다 어리거나 약해 보이는 아이를 고르게 되죠. 그리고 으스스한 골목에서 우리보다 수가 적게 같이 다니는 아이들, 또 학원 같은데 가서 학원비가 얼마인가 알아보고 빠싼 학원 근처에 가서 돈 많은 것 같은 애들을 찾아 보기도 해요.”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수법이 있고, 계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상자와 같은 뺑치기에 아이들이 안 당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뺑치기를 하는 입장에서 방지법을 물어보니 비교적 상세하게 그 방법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1) 으스스한 골목이나 골터, 놀이터에 비행스러운 분위기로 물려 있는 무리를 보면 절대 접근하지 말아야 한다.

2) 좀 떨어진 곳에서 “야 - 이리와봐~ ” 하며 시비조로 유인 할 때 무조건 도망가야 한다.

3) 만약 걸렸으면 반항 하지말고, 말로 자극주지 말고 순순히 요구 사항을 우선은 달래 듯 들어주고, 풀려 나와 신고해야 한다.

4) 가진 것에 대하여 솔직해야지 나중에 뺑치기 하는 애들이 몸을 뒤졌을 때 양말 같은 데서 돈이 나오거나 하면 더 폭력을 당할 우려가 있다. 정말 아무 것도 없을 때는 크게 때리지는 않는다.

5) 어찌되었던 마주치지 않는 것이 제일이므로 유해환경이 있는 곳을 피해 다니는 것이 안전하다.

이제는 이러한 폭력적 행동이 몸을 망치고, 경찰서를 가게 되고, 시간, 돈 모든 것이 낭비되는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 것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렸으며, 과거에 대한 반성을 진심으로 하고 있다. 대상자는 “일단 20살이 넘어 가니까 너무나 창피스러운 행동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비행시 부모님, 선생님, 선배들이 “나중에 인생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그 당시는 귀에 들리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뼈저리게 그 말뜻을 알겠

다“며 비행과 폭력의 비효율성에 대하여 깊이 숙지하고, 자신의 과거행동이 창피하고 괴로운 듯이 후회하고 있다.

4. 가정환경 : 서울에서 태어나 가족으로는 부모님과 누나가 있고, 방 두칸에서 어려운 경제생활을 해왔고, 생업으로 바쁜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기본적인 사회성과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고, 아버지의 잦은 술주정과 완력적 훈육 태도에 심하게 기가 죽고 주눅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와 반면에 어머니는 대상자가 비행을 저지른 후 지속적인 사랑과 인내심을 보여 주어 대상자를 변화시키는 원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머니의 대상자에 대한 사랑은 지극하였다.

5. 학교생활 : 무질서하고 산만한 성향으로 인해 학업에 몰두하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기초학습의 부족으로 성적은 하위권이었으나, 학교생활은 재미있어 해 고2때까지는 그런 대로 다닐 수 있었다. 그러나 다리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쳐 휴학, 다시 복학 했을 때는 비행행동 등으로 인해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학교가 다니기 싫어 가출을 하는 등 고2때부터 비행이 본격화되어, 결국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다. 그전까지의 교육관계 및 선생님과의 관계는 “좋았어요”라고 응답하였다. 교내에서는 폭력이나 비행행동을 하지 않았다 한다.

6. 유해환경 : 중 3때부터 또래들과 어울려 놀다가 술, 담배를 배우고 당구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으며, “아무 생각없이 노는 것이 좋았다”고 한다. 공터나 놀이터, 야산 등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주량은 소주1병, 담배는 하루 5개비 정도하며, 폰팅 700씨비스로 비슷한 또래의 이성들과 진한 농담을 즐기기도 했다고 한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평소 5-6명 정도 친하게 지내고 있으며, 그 중 3명이 아주 가까운 사이로 장래문제, 여자친구, 집안에 대한 화제로 대화를 나누며, 주로 호프집이나, 노래방 친구의 자취방 등에서 만난다. 친구들은 대

학교에 재학중인 친구, 직장에 다니는 친구, 무직상태로 있는 친구 등 다양한 부류가 있다고 한다.

2. 비행친구 관계 : 만나는 친구 중 2명이 비행으로 보호관찰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1주에 1-2회 정도 만났으며, 서로 나쁜 일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한다. 예전에 가출했을 때는 몰려 다니며 유흥업소, 친구의 자취방 등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여자애들과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뺑치기를 해 유흥비를 마련했다고 한다.

3. 이성친구 관계 : 5명 정도 사귀어 본 적이 있고, 현재는 1명(고 2)을 지속적 만나고 있다고 한다. 성경험은 고 2때 가출하여 친구의 자취방에서 1달 동안 지낼 때 처음 경험해 해보았다고 한다.

4. 폭력 행동과 동조 집단 관계 : 대상자는 폭력씨클 가입은 한 적이 없고 그저 같은 학교에 싸움 잘하는 7-8명의 아이들과 집단을 이루어 놀러 다니는 것을 자주 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생활이 더욱 나태해지고 결국 그들과 생활하는 것이 좋아 가출을 하게 되었으며, 그들과 같이 있으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았다고 한다. 자신과 친구들이 싸움을 할 때면 대부분 모르는 척 했으며, “자신들이 무서워서 그랬을 것이다”라고 반응했다.

IV.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 가해 정황

1. 언제 : 1999. 4월

2. 어디서 : 대구 상인동 동네에서

3. 누구와 함께 : 친구4명과 함께

4. 누구에게 : 동네 남자 고등학생

5. 어떻게 : 주먹으로 얼굴을 4명 모두 때리고, 돈 2만 6천원 빼앗다.

6. 왜 : 별로 돈 없이 친구가 사는 대구에 친구들끼리 놀러 갔다가 있었던 돈은 여관비로 다 쓰고, 친구 누나에게 차비를 얻으려 했으나 못 만나 서울로 갈 차비를 마련하려 “뺑치기” 하다가 폭력을 행사했다. 지금

생각하면 무척 창피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한 생각이 진심으로 들고 있으며,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폭력을 사용하는 것인 줄 알았다고 한다.

7. 폭력당한 학생 : 알지 못하는 고등학교의 남학생(18세)으로 순하고 만만해보여 선택했고, 얼굴에 타박상과 상처를 입혔다. 피해자의 부모가 너그러워 금전 없이 그냥 합의하였으며, 다시 만나면 피해자와 그의 부모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한다.

8. 폭력 행사가 발각된 과정 : 폭력을 당한 학생이 바로 신고하여 길 거리에 단속 나와 서 있던 경찰차에게 잡히게 되었다. 마침 그 지역이 우범 지역이라 경찰차가 순찰중에 있을 때 신고를 받게 된 것 같으며, 때마침 순찰차 앞을 유유히 지나가고 있는 대상자와 친구들을 경찰이 검거하게 되었다고 한다.

V. 보호 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대상자는 “한마디로 말붙이기 어렵고 삭막했던 같아요.” “항상 화난 것 같은 표정이라서 좀 친절하게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신 분도 있긴 한데 ...” 라고 심정을 얘기하고 있으며, “가끔 약속을 어겨 구인 되어 오는 애들을 수갑채워 같은 대기장소 앉혀 놓는데, - 너희들도 잘 못 하면 이렇게 된다-하고 보여주는 것 같아 그런 모습은 좀 싫어요.”라고 하기도 하며 주눅 들게 하고 죄의식이 상기되는 자극에 저항감을 느끼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여주었다.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출석확인서에 도장 찍고 오는 것에 중요도가 있다고만 인식하고 있다.

2. 범죄예방위원 : 범죄예방위원회 대해서 상당히 만족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상담을 해주고 있다고 여기며, 상담선생님과 의 상담을 통하여 많은 내적 성장에 도움을 받고 있음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시고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니까, 우리 같은 애

들에게는 참 좋아요!”라며 고마워하고 있다.

3. 처우프로그램 : 상담실에서 같은 폭력건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대상자들이 모여 분노를 조절하고 사회 기술을 향상시키는 집단프로그램을 해보았는데 참 좋았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이런 유형의 프로그램은 더 해 보아도 좋을 것 같다고 한다.

4. 시설 : 대상자는 시설에 대해서는 큰 문제나 욕구를 제기하고 있지 않았으나 휴게실 정도 있으면 더 만족스럽겠다고 하고 있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에 대한 심각한 문제 5가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태도-보호관찰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부족-보호관찰소 분위기-과도하게 많은 수강명령 집행자-복지 시설의 부족(매점, 휴게실)

2) 보호관찰소내의 필요한 서비스

더 많은 보호 관찰소 확보-보호위원과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관계 증진-다른 사회사업 기관과의 연결-직업상담-신중한 보호 위원들의 선정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대상자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원인은 반에서 싸움의 순위를 정해,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아이를 ‘짱’이라 하여 그 아이 그늘 밑으로 들어가 자신이 힘이 있는 양 과시하려는 과정에 학교폭력이 발생된다고 하며, 싸움을 잘하는 아이들은 눈빛이 서로 잘못 마주쳐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해 싸움을 거는 등 어떤 경우라도 시비를 붙여 싸움을 건다고 한다. 폭력성을 가진 학생들의 특징으로는 평소 불량기가 있으며, 수업 시간에 태연히 뒤에서 잠을 자거나 지각, 결석이 잦은 아이를 들 수 있다.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 해결은 계속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교내에서는 지속적인 관찰과 감시가 불가능하고, 사회와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폭력에 대한 감시체계가 너무 허술한 현실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한다. 학교를 벗

어 나면 폭력가해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자유로운 세상이고, 폭력에 쉽게 개입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나 상황이 많기 때문에 학교폭력이 사라질지는 의문이 든다고 한다.

2. 왕따현상 : 한 반에 특정 1,2명 정도는 왕따의 대상이며, 자신은 경험하지도 왕따를 시켜본 적도 없다고 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학교내의 왕따 대상은 특이하고, 말을 잘 하지 않는 아이, 혐오감을 주는 아이, 부족하여 뒤처지는 아이, 이기적으로 너무 공부밖에 모르고 반에서 하는 일을 잘 따라 해주지 않는 이기적인 아이가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왕따현상에 대해서는 “각각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치사한 것”이라고 한다.

3. 폭력대책 : 방안으로는 사회와의 연계 감시 체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고, 선생님들의 처벌 방법에도 폭력적 처벌을 사용을 자제할 것과 보호관찰소내의 상담실처럼 학교에도 교내의 교사가 아닌 상담선생님들이 배치되어 활용 가능한 상담실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개인적으로 폭력을 피하는 방법은 학교생활을 평범하게, 무난하게 해나가면 폭력 가해자들에게 찍히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4. 욕구 : 아버지가 술을 적게 드시고 가정생활에 충실히 하면 자신도 폭력 같은 것은 사용하지 않고 “어서 커서 부모님께 호강드리고 싶다”라고 하였으며, “자신이 저지른 만큼 처벌을 받는 것도 괜찮다”며 보호관찰소 제도와 같이 자신의 죄를 반성하게 하고, 상담선생님과 신뢰감을 가지고 상담을 계속하게 되면 자신의 폭력사용은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

□ 사례 8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

1. 성별 : 남

2. 연령 : 만 17세
3. 신분 : 무직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 1. 3호
6. 보호관찰 시작시기 : 1997. 09. 05 - 1999. 09. 12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1. 성격적 특성 : 매사 긍정적이며 온화하고 낙천적 성격의 소유자로서, 상대방을 편안하게 잘 배려해 주는 편이며, 동갑의 친구보다는 후배들과 더 잘 지내고 있다. 일반 성격 검사에서 책임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양호하게 나왔으나 지배성과 사고성은 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번 주어진 일은 열심히 끝까지 해내는 끈기도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력도 좋으나 ‘욕’ 하는 즉흥적 성향이 있음을 스스로 진단하고 있다.

2. 비행경험 : 모든 비행이 중 3말경부터 1년여 간 동시 다발적으로 이루어 졌다. 이 기간동안 동네 또래집단과 어울려 다니며 자주 가출, 외박을 했으며, 노래방, 커피숍, 술집, 오락실 등지로 놀러가서 술, 담배, 본드, 니스, 가스등의 유해 화학을 흡입했고, 시동이 걸려 있는 남의 오토바이를 친구와 같이 훔쳐 달아나기도 하였고, 거리에서 다른 아이의 돈과 물건 갈취하고 패싸움을 벌이는 등 이로 인한 여러 차례의 법척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가출이나 외박시는 3-4명이 같이 전철이나 교회 안에서 새우잠을 자기도 하고 무박으로 2-3일씩 집밖으로 나와 돌아다니며 놀러 다니며 비행을 저질렀다 한다.

3. 폭력의식 : 동네에서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몰려 다녔으며, 같이 다니다 보니 우리 쪽에서 상대패들에게 누군가 맞았거나 모욕을 당했다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다 같이 몰려가 상대를 때려주곤 했다고 한다. 조직 내에서 누가 맞는 일은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자신의 집단에 싸움을 아주 잘 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아이를 믿고 더 용기를 내어 싸움에 가담

하게 되고, 집단의 소속원 들이 하는 대로 따라 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들과 같이 행동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폭력이 몸에 배는 생활이 되었다. 부모님에게도 무척 불손하게 소리치고 욕까지 서슴치 않았던 그 시간들이 지금 생각하면 자기가 아닌 다른 무엇이 자기 마음에 들어와 휘젓고 자신을 조종한 것처럼 생각되며, 지금은 차라리 맞고 돈을 버는 쪽이 현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일부러 맞을 짓을 하고 돈을 뜯어내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함) 대상자는 “지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참아야 한다고 다짐하지만, 만약 정말 엄청 열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욕하는 성질에 주먹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하는데, 내가 못 참는 상황은 나를 때리고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생이 맞고 들어온다던지 부모님을 욕하고 모욕하는 일에는 지금도 솔직히 못 참을 것 같다”고 한다.

4. 가정 환경 : 대상자는 성남에서 2남중 장남으로 태어났으며 어려서는 아주 착하고 순종적으로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온순한 아이로 자랐고,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과 동생 모두 대화가 잘 통하는 화목한 가정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였다. 특히 아버지는 구두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하시며, 성격은 아주 자상하시고 성실한 분으로 대상자와 격의없는 대화를 나누고 지냈으며, 대상자가 한참 학교문제로 속상하게 했을 때 강목으로 무섭게 때리신 일이 있었다. 아버지는 평소에는 온화하시고 자상하시지만 한번 화가 나면 무서운 모습으로 돌면 하시는 것이 본인이 아버지의 성격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머니도 썩썩하신 성격에 활발하시며 자상하시어 가족간에 서로 재미있게 지낸다고 자신의 가족에 대해 무척 만족함을 표현하고 있다. 자신의 갑작스런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으로 그간 가족들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이 심했고 빚까지 지게 되어 생활이 어려워졌지만, 끝까지 자신이 예전처럼 돌봐주는 모습을 지켜봐주시고, 격려하여 주셨으며 따뜻하게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은 가족이 가장 소중하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5. 학교생활 : 중학교 3학년 때 중퇴을 한 후 2번이나 복학을 시도했

으나 웬지 틀에 박힌 학교생활을 견딜 수가 없어 스스로 자퇴를 하게 되었다 한다. 학교에서의 성적은 중하위권 정도였고, 그래도 2학년까지는 재미있게 다녔는데, 3학년 2학기부터는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전과 완전히 달라진 생활을 하게되고 결국 중도에 학업을 포기해야 했다. 한문 선생님과 체육 선생님의 지독한 체벌도 견딜 수 없는 요인으로 학교에 정이 떨어졌다 하는데,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자신이 참 어리석었다 생각하며 반성이 된다고 한다. 그 때 친구들과 아무 생각없이 경험한 본드 등 유해화학의 영향으로 학업에 집중 할 수 없었고, 마음을 잡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도 그 동안의 비행 사건들을 정확히 기술 해 내지 못하는 등 기억력이 너무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6. 유해환경 : 같은 중학교의 동갑내기의 문제아인 친척(이종 사촌)이 집 근처에 살아 중3때부터 같이 어울리며 친하게 지내고 담배와 술을 배웠으며 비행도 같이 저질렀다고 한다. 현재 담배는 하루 1갑 정도, 술은 많이 마시는 편이라 마시면 4-5명은 계속 마실 수 있다하며, 모두 중3때 처음 친척과 친구들로부터 배웠다고 한다. 현재는 모든 친구들과 발을 끊고 아예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격리된 생활을 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술은 어른과 같이 마시고 있다고 한다. 한때 본드 니스 사용으로 기억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온 것이 분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 한번 몰려다니면 적게는 6-7명, 많으면 12-15명 정도가 몰려 다녔으며 거의 학교 안 다니는 폭력, 절도 등 비행전과 2-5회 정도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 본인이 정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동갑의 친구는 없으며 후배 1-2명이 그래도 잘 통하는 친구이나 아주 깊은 얘기를 나눌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 대상자는 가족관계가 좋아 많은 대화를 가족들과 스스럼 없이 하고 있어 친구와는 깊은 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한다. 친구들과 어울리면 주로 오락실, 노래방, 술집등을 다

니기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학로에 가서 폭주족이 되기도 하고, 거리에서 뺑치기(돈꾸거나 뺏는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2. 비행친구 관계 : 같은 또래의 문제아인 친척 1명이 같은 학교, 집 근처에 살아 자주 어울려 친하게 지내면서 인생이 바뀌었을 만큼 이 친구와 밀착되면서 온갖 비행이 시작되었다. 한번은 아파트 앞에 시동을 걸고 세워둔 오토바이를 이 친척 친구가 훔쳐와 같이 타고 다니다 5일만에 붙잡혀 절도로 처벌받기도 했고, 동네 불량배 집단과 몰려다니며 싸움을 하다가 폭력으로 처벌받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그 친구도 중학교를 중퇴하고 지금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자주 만나지는 못하나 친척이라 계속 친하게 지내고 있다. 다른 불량한 친구들과의 관계는 이제 다 끊어져 만나지 않고 있고, 이제는 본인이 만남을 피하고 있어 불러도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

3. 이성친구 관계 : 그냥 친구처럼 만났던 여자애들은 백명도 넘을 정도로 많았고, 그 중 5-6명 정도 길게 사귀어 보았으며, 지금은 한명 정도를 지속적으로 만나고, 나머지는 그냥 여자친구로 만나고 있다. 여자를 사귀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남자들 보다 편하고 잘 통한다고 한다. 대상자가 사귀는 여자 친구들은 대부분 본인보다 어리고 학교도 중퇴, 중졸 등으로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며 그들과 성관계도 수차례 경험했고, 주로 여자의 빈집이나 여인숙, 아니면 본인의 집을 이용 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장래를 약속 할 만큼 뚜렷한 존재는 없고 그냥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정도인데 이제는 남들이 말하는 데이트를 해보고 싶고, 같이 걸으며 산책도 하고 싶다고 한다. 그 동안의 이성친구와의 관계는 진지한 인간관계로의 사귀이라기 보다는 단순히 몰려다니며 즐기는 관계가 많았다고 한다.

4. 폭력 행동의 동조 집단 : 학교 폭력써클이나 이름난 집단에 가입한 것은 아니고 그저 동네에서 싸움을 좀 잘하는 애들과 어울려 다녔다고 한다. “그 집단이 주먹이 세다는 것이 동네에 묵시적으로 알려져 있어 다른

아이들이 접근하지 못했고, 그런 집단의 일원이라는 것이 폭력세계에서는 편한 점도 많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다 모이면 20-30명은 되고 남녀 함께 몰려다니며 배회하며 놀러 다니거나 서너명씩 외박을 하고 거리에서 숙식을 하며 떠돌아다니다 비행을 하며 놀았다고 한다. 이때는 정말 누구의 말도 안 들리고 아무도 설득 할 수 없었을 정도로 그들과의 생활이 마음 편했으며, 자신의 모든 행동들이 그들과 함께라면 가능했고 별로 큰 죄책감이 안 생겼다 한다.

IV.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폭행)가해 상황

1. 언제 : 1997년 9월
2. 어디서 : 건대입구 오락실 근처
3. 누구와 함께 : 친구, 후배, 여자친구들(모두 15명 정도)과 함께
4. 누구에게 : 후배와 후배 친구3명
5. 어떻게 : “돈 좀 빌려달라, 혁대도 내 놓아라”하며 혁대와 돈 2000원을 빼앗고 때렸다.

6. 왜 : 유흥비가 모자라고, 자신의 혁대가 끊어져 불편했으며, 이전에 돈을 많이 빼앗아 본 경험이 있었고, 학생들이 순순히 말을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며, 죄책감이 없었다고 한다.

7. 폭력(폭행)당한 학생 : 같이 놀던 후배들의 친구들로서 대상자와는 평소 알지 못했으며, 대상자의 집단의 성격을 아는지라 폭력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순순히 한마디에 요구하는 것을 다 내놓았다고 한다. 가끔씩 얼굴을 마주치기도 하지만 모르는 척하고 지나간다고 한다.

8. 폭력 행사가 발각된 과정 : 피해자 3명 중 한 명이, 사건 후 바로 근처 파출소로 가서 신고하여 4명이 그 자리에서 잡혀가게 되었는데, 2명은 아무 짓도 안한 친구였으나 4명 모두 파출소에서 거품을 물 정도로 매를 맞고 2명은 무혐의로 풀려나고, 본인을 포함한 비행에 가담한 후배는 보호관찰처분을 받았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한마디로 “무서워요, 인사도 잘 안받고 완전 죄인 취급하며 거의 반말로 말해요” 라고 하며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모른다 하고 있다.

2. 범죄예방위원 : 인격적 대우를 받는다고 느껴지고, 분위기도 부드러워 마음 편하게 올 수 있었다고 한다. “누나같이 솔직하고 부담없이 얘기 할수 있어 좋아요”라고 하며 범죄예방위원과 상담하는 것은 전혀 저항이 느껴지지 않고, 범죄예방위원과 자신의 진로문제 등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주고받아 진심으로 자기를 걱정해주고 관심을 가져 주는 것에 무척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한다.

3. 처우프로그램 : 상담 외에 다른 프로그램이 있다면 해보는 것도 좋겠으나 귀찮을 것 같은 생각도 든다고 했으며, 직업과 관련된 기술교육, 낮은 학력과 전과가 있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대상자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있으면 유익할 것 같고, 대상자가 직접 받지는 않았으나 다른 친구들 얘기가 ‘개시 교육’이 너무 형식적이어서 괴롭고 지겹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4. 시설 : 보호 관찰소의 시설에는 별 다른 불편함을 못 느끼며, 바란다면 체육시설 및 매점 등이 확충되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

교통불편 -기타(“강제교육”이 많다)-보호관찰대상자와의 인간관계부족-복지시설의 부족(체육시설)-보호관찰소 분위기(“싸늘하다”)

2) 보호관찰소에서 필요한 서비스

교통 편의제공-보호위원과 보호관찰대상자와의 관계증진-직업상담-청소년 진로상담-사회서비스제공-전문적 개인상담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관한 견해

1. 학교폭력 : “공부 잘 하는 애들중에는 잘 난척하는 애들이 많고, 돈 많은 집 애들은 엄마들이 더 난리를 치는 것 같다”며 그런 아이들을 못마땅해 폭력집단에 가입하면, 어떤 계기를 만들어 그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고 한다. 학교내에서 느껴지는 불평등이 있는 한 폭력 발생은 불가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2. 왕따현상 : 본인이 당해 본적은 없고, 잘난척이 심하거나 빠지기 잘해 분위기 망치는 아이는 왕따를 주고 싶다며 한반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1-2명정도가 있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아이들이 더 이기적이라 왕따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것 같다고 한다.

3. 폭력대책 : 학교에서 공부 성적에 관계없이 똑같이 대해주고 선생님이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폭력은 많이 사라질 것이며, 한번 폭력을 사용하여 처벌을 받더라도 계속 사랑을 보여주시고 친구들 앞에서 칭찬 해주고, 체면을 세워 주시면 미안해서라도 더 이상 학교에서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4. 욕구 : 가정적으로는 부모님이 지금과 같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주고, 하루 빨리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구해 일을 하게 되면 자신의 폭력사용은 없어질 것이며, 사회적으로 비행청소년에 대한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 주고, 보호관찰소에서 직업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 주면 폭력은 사라질 거라고 한다.

□ 사례 9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징

1. 성별 : 남
2. 연령 : 만 18세
3. 신 분 : 비일정직(서비스 업종)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관찰 1.3호
6. 보호관찰 시작시기 : 1997. 12. 04 -1999. 12. 11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1. 성격적 특성 : 겉으로 보기에는 활발하며 불임성있고 부드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나, 본인이 “참기도 잘 참지만 일단 화가 나면 불같은 성격으로 변해요”라고 스스로 진단하는 것과 같이 다면적 성격검사에도 정서 통제가 약하여 공격적 충동을 적절히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격적 성향이 폭력으로 쉽게 이어질수 있는 요인으로 보여진다.

2. 비행경험 : 중 1일 때 “돈주겠다, 맛있는 것 사주겠다”며 친구들과 선배들이 피어 남의 집에 들어가 절도를 저지를 때 망을 봐 준 적이 있었고, 나중에 그들이 또 다른 절도를 하다가 발각되어 같이 불려가 법적 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대상자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적극적으로 교내에서 노는 친구 그룹과 어울리며 가출 7-8회 정도 경험 있고, 일단 나가면 보통 15일에서 1달 정도 친구, 선배들과 놀다 들어오게 되며, 비용은 친구들과 같이 쓰거나 중국집 또는 주유소에서 기숙하며, 일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가출의 이유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가 싫어서였고, 그후에는 가정문제보다도 친구들의 유혹으로 휩쓸려 다니게 되었다 한다.

3. 폭력의식 :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다 보면 사소한 시비에 휘말리게 되는데 이때 대상자의 일원이 당했거나 모욕을 당하면, 우선 앞 뒤 안가리고 폭력으로 보복을 해 주어야 직성이 풀리며, “일단 폭력을 사용할 때는 나중에 어떻게 될 지는 생각 할 수 없고, 폭력 그 자체에만 몰두를 하는 거죠! 그러곤 나중에 후회해요, 그렇게 까지 안싸워도 되는 일인데, 자세히 돌아보지도 않고 일단 눈에 친구가 맞은 것이 보이거나 자신을 모욕

할 때,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볼 때는 무척 기분이 나빠져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어요.”라며 무척 알팍한 충동적 감정에 지배되어, 자신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쉽게 폭력으로 야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 가정환경 :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형이 있고, 대구에서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중3때 어머니와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해서 따로 떨어져 지내시며, 이혼 전부터 결핵 중증 환자로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대상자는 지금도 부산까지 가서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드리는 등 부모님과 본인과의 관계는 원만하며, 특히 부친에 대한 애정을 깊이 기억하고 있어, 자신의 비행시기에 “아버지가 곁에 계셨다면 학교도 끝까지 다녔을 것이고, 이토록 비행 친구들과 어울려 정신 못 차리고 밖으로 나돌 때 아버지가 계셨다면 좀 잡아주셨을 것 같다”하며 부모님의 이혼을 아쉬워하고 있다. 사실 부친의 훈육방법이 지나친 익애적 태도로서 대상자를 의존성이 강하고 책임감이 결여되는 성격의 소유자가 되게 하는데 영향을 끼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어머니는 생활 설계사로 일하고 계시며, 자신에게 잔소리하는 좀 하셔도 자상하게 잘 대해주신다고 한다. 형이 좀 자신보다 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로 법적 처분을 받은 적은 없으나 가끔 나가서도 싸움을 하고 들어오며 성질을 부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5. 학교생활 :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부모의 기대감이 없었기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없고, 지능도 낮아 성적은 하위권으로 학업에는 적응을 잘 못했으나, 활발한 성격으로 교우관계는 원만하여 친구들 사귀는 재미에 학교생활은 좋았다고 한다. 그러나 고1때 가출 등으로 무단결석을 오래하고 그 후에도 학교 폭력으로 물의를 일으켜 자퇴를 당하고 말았으나 아쉽고, 지금은 복학을 하고는 싶으나 2년이나 어린 후배들과의 적응 문제가 두려워 엄두를 못 내고 있다고 한다.

6. 유해환경 접촉 : 중 1때 락카페 정도를 가보고, 본격적으로 유흥업소에 출입한 것은 중2학년 때부터이며, 그때부터 술, 담배를 하고 주량은 소주1병, 담배는 하루 1갑 이내 정도라 한다. 16세부터는 아예 단란주점에

서 웨이터 생활을 하였다하며 유흥업소에 대한 자신의 견해는 “애들에게 술집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술 먹고 괜히 시비를 걸고, 남을 귀찮게 해서 싸움이 나요.”라며 폭력적 상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험으로 말해 주고 있다. 대상자도 이 같은 과정에서 싸움이 벌어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및 비행친구 관계 :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는 15명 정도 이고, 현재는 집단적으로 몰려다니지는 않으며, 그럴 이유도 없고, 그러는 것이 우습다고 느껴진다고 한다. 이 친구들 거의가 비행경력(폭력, 절도, 유해화학 등으로 2~4회 보호관찰처분)이 있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는 그 중 3명인데, 현재 1명이 소년원에 가 있으며, 나머지 2명은 대상자와 같이 절도, 폭력에 가담했던 친구로 절대적으로 비행 청소년끼리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논다고 소문이 나면 거의 이런 식의 친구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3. 이성친구 관계 : 중학교 때부터 줄잡아 한 30여명 정도는 사귀어 봤지만 1달에서 그 관계가 길어야 100일정도 갔으며 거의 연상의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고, “연상이 누나 같이 포용력 있고, 부담스럽지 않아 좋아요 더 잘 해주거든요!” 라고 하며 현재는 1명을 사귀고 있는데, 이전에 사귀던 여자친구와는 전혀 다른 관계로 느껴지고, 갈수록 애정과 책임감이 느껴지게 된다고 한다. 이 친구 역시 2살 연상이며 미용실 다니다 현재는 회사에 근무중인데, 교통사고로 많이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무척 걱정스럽다고 한다. 이 친구 때문이라도 자신이 하는 일을 확실하게 하여 미래를 위해, 이제 바르게 살고 싶다고 처음으로 희망적인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이성과의 성관계는 고 1때 가출하여 형들 자취방에서 술먹고 처음 보는 누나의 요구로 시작해 보고 현재의 파트너와 가끔 가질 때도 있다고 한다.

4. 폭력 행동과 동조 집단과의 관계 : 교내 씨클이나 이름있는 집단에 가입한 적은 없고 그냥 학교에서 논다고 하는 애들과 동네 선,후배들과 몰려 놀러다니며 유흥업소등을 자주 다니다 싸움을 벌이고, 가출을 하는 등 “집단 속에 있으면 책임의식 없이 그냥 막가는 생활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폭력동조집단이 비행행동을 야기 할 수 있는 충분한 토대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 가해 상황

1. 언제 : 97년10월

2. 어디서 : 송파 잠실 병원 앞에서

3. 누구와함께 : 친구5명과

4. 누구에게 : 길 가던 모르는 애들 6명에게

5. 어떻게 : 보복으로 주먹으로 얼굴을 치고 몽둥이로 마구 때렸다.

6. 왜 : 친구와 선배가 폭행을 당해 상처난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화가 치밀어서 상대방에게 폭행을 가했으며, 자신의 친한 사람들이 폭력을 당한 것이어서 자신의 성격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7. 폭력당한 학생 : 전혀 모르는 애들로서 머리가 깨지고, 팔다리 타박상, 얼굴이 붓고, 까진 상처가 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는지 대상자는 잘 모르며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 6명 모두 합하여 합의금 300만원으로 어머니가 처리 하였고, 대상자는 “생각보다는 금액이 작은 것 같아요”라고 말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소식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약간의 미안한 감정은 있지만 원인 제공은 그쪽이 먼저 했다고 생각하고 있다.

8. 폭력 행사가 발각된 과정 : 싸움이 벌어졌을 때 경찰이 와 붙들렸다.

V. 보호 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대상자는 보호관찰 위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며 “어떨 땐 무시하는 것 같아요, 말투가 거칠어요”라며 항상 친절히 대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한다.

2. 범죄예방위원 : “부드럽고 계속 웃으며 친절하게 대해줘서 좋아요”라며 분위기에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상담 내용에 대하여 앞으로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3. 처우프로그램 : ‘장애인 돌보기’ 사회봉사를 해본적 있는데 아주 유익했다고 여기고 있으며, 상담실에서 내주는 숙제가 좀 귀찮으며, 캠프 등 단체활동 프로그램은 더 참가해 보고 싶어한다.

4. 시설 : 위치적으로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며, 오락실 매점, 체육시설등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고 한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의 심각한 문제 5가지

너무 잦은 상담-상담시간의 부족-교통의 불편-보호관찰소 직원에 대한 교육부족-복지시설의 부족(오락실, 매점, 체육시설등)

2) 보호관찰소에 필요한 서비스

법률문제 상담 -성문제 상담- 음주, 흡연문제 상담-더 많은 보호 관찰소 확보- 필요에 따른 상담 시간의 변동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대상자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노는 애들끼리 어울리다 보니 자기들끼리는 귀찮은 것을 서로 시키지 못하니, 자신들보다 약한 애들을 골라 그런 일들을 시키려하는데, 일방적으로 약한 애들에게 명령하여 말 안 들으면 폭력을 쓰게 되죠”라고 반응했다.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어리벙벙한 애들”이란 표현을 사용했으며, 폭력을 가하는 쪽은 싸움 잘하고 노는 아이들이라고 한다. 학교에서 폭력은 심각하게 생각되

나 해결 방법은 대답을 못하고 있다.

2. 왕따현상 : 역시 “어리병병하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지 못한 아이들, 하는 것이 보통이하인 아이”가 왕따의 대상이라 말하고 보통 한 반에 1명 정도는 존재하며 본인이 왕따가 되 본적은 없으며, 자신의 노는 집단에서도 자기들끼리 “잘난 척 하는 아이, 싸가지 없는 아이”를 왕따 시킨 경험이 있다고 한다. 일단 왕따를 당하면 학교생활 및 사회생활은 끝이라고 생각할 만큼 괴로움이 크다고 한다.

3. 폭력대책 : 만약 폭력의 대상이 되었다면 그냥 분위기를 맞추면서 어울리는 척 해야하고,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이르면 보복 당할 확률이 높다고 대상자는 생각한다. 그러나 잘 아는 힘있는 선배가 있다면 상의해보면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고 한다. 현재의 폭력대책 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폭력이 계속 폭력을 불러들이게 되어서이다”라고 한다. 그 외에 서로가 자제를 하며 말조심을 해서 싸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고, 더 참고, 서로 웃고 지내면 폭력이 줄 것이라고 한다.

4. 욕구 :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땀 흘려 일해 돈 벌고, 여자친구의 몸이 어서 회복되면 자신의 마음이 안정되어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며, 서로 이해하는 사회가 되어 시비가 붙지 않도록 해야하며, 학교에서는 공부를 못해도 마음 붙일 수 있도록 못한 애들에게도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한다.

□ 사례 10

I. 대상자의 기본적 특징

1. 성별 : 남
2. 연령 : 만 16세
3. 신분 : 직장인(기술 서비스직)
4. 비행명 : 폭력

5. 처분명 : 보호 관찰 1.3호

6. 보호관찰 시작시기 : 1997년 10월 15일 - 1999년 10월 22일

II. 개인적 특성 및 환경적 특성

1. 성격적 특성 : 온화하고 다정하고 자상하고 섬세한 면이 있으며, 약간 내성적인 성격을 지녔으며, 책임감이 강하고 일에 대한 적응력도 좋고 끈기가 있어 맡은 일은 딱 부러지게 하는 다부진 면도 있다. 또한 왜소한 체격조건에 자존심이 무척 강한 편이라 무시를 당하거나 상대가 만만하게 보는 것에는 강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으며, 사교성은 좋은 편이라 친구들을 잘 사귀고 특히 여자애들이 좋아한다고 한다.

2. 비행경험 : 중학교 때부터 교내 일진회 아이들과 싸우다 그들과 친해져 아예 일진회 회원으로 가입을 하게 되었다고 하며, 그들과 물려다니다 유흥업소등을 출입을 하기 시작하여 술, 담배를 배우게 됐고, 집단적 행동에 별 의식없이 빠져들어 폭력상황에 노출이 잦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집단적으로 비어 있는 친구 집에 남녀가 모여 음란 비디오를 보았으며, 다른 친구들이 부탄가스를 할 때 옆에 있다가 대상자가 흡입한 것으로 오해받아 친구들과 같이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가출 중 비행이 잦은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옥상에서 부탄가스를 하는 친구를 보고 호기심에 따라 하다가 주민신고로 법적 처분을 받았고, 놀이터에서 여자친구와 데이트하는데 끼어 들어 방해한 28세의 남자 행인과 싸움이 붙어 상대의 코가 이그러지는 중상을 입히는 등, 대상자는 고1때까지 여러 차례 크고 작은 폭력을 행사해 왔다 한다. 그러나 유해화학의 접촉은 호기심으로 부탄가스가 1회로서 그후는 결코 접한 적이 없다고 한다.

3. 폭력 의식 :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라고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고, 왜소한 체격과 내성적인 성격으로 자꾸 또래들로부터 소외당하는 상황이 싫었고, 그러한 것에 굴하여 기죽고 싶지 않은 자존심에 폭력적 대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폭력 사용을 했다고 한다. 대상자는 그래

도 폭력을 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 마음으로 정한 약속이 있는데, 본인보다 약한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는 절대 폭력을 사용치 않으며, 싸움중 상대가 코너에 몰렸을 때는 기다려 주고, 사소한 일로 먼저 시비를 걸지 않는다는 것과 여자에게는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 한다. 앞으로 무시하고 만만하게 보고 이유없이 거는 시비에 참으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장담은 솔직히 못하겠다며, 상황에 따라서는 참는 것이 오히려 비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며, 폭력을 행하면서도 무자비하게 마구잡이로 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폭력을 쓰면서 느껴지는 심리상태로는 사건의 나름인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시비를 붙여 이겼을 때,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과 싸워 이겼을 때는 쾌감을 느끼나, 자신이 술김에 시비를 걸고 일방적으로 때려 상해를 입혔을 때나, 자신보다 어리고 약한 아이를 버릇 고쳐준다고 때리거나, 알보고 괴롭히기 위해서 사용한 폭력은 오랫동안 찢찢하고 죄책감이 남아 다시는 피해자를 보고 싶지 않다고 한다. 대부분 폭력 후 후회는 하지만, 자기방어나 친구들의 방어를 위해서는 필요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4. 가정환경 :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형이 있고,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4살 때 간암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때부터 어머니의 술집 경영으로 거의 밤 늦게까지 형과 집에서 방치된 상태로 지내게 되었으며, 적절한 유년기의 보살핌과 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어머니의 사업으로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으며, 어머니의 성격은 차가우신 편으로 애정은 있으시나 표현에 인색하시고, 자상한 스타일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하셨다고 한다. 어머니는 아들의 섬세하고 부드러운 인간적인 성향을 믿으셨기 때문에 대상자가 비행을 저지르고 몇 차례 유치장에 드나들어도 재수가 없어 그랬다며, 편을 들어주시고 믿어주셨다고 한다. 어려서 형과의 관계도 별로 좋지 않아 외로운 시간을 친구들과 주로 보내며 지냈고, 모든 것을 스스로 택하고 결정하며 지내서인지 자존심

이 세고 독립심이 강한 편으로 자존심을 지키고, 가정환경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하여 폭력적 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5. 학교생활 : 초등학교까지는 성실하게 생활을 했으나 학습 습관이 들지 않았고, 어려서부터 학습에 대한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으며 어머니가 바쁜 생활로 인해 공부에 대한 자극과 적절한 지도를 신경 써주시지 못하여, 공부에 대한 요구로 스트레스를 주신 일도 없어 학습에는 별로 흥미를 느낄 수 없었으나 수영은 좀 잘 하는 편이고 중학교 때 태권도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한다. 중학교에 가면서부터 일진회의 일원이 되어 일명 ‘노는 아이’로 찍혀 정상적인 친구 관계도 떨어져 나가고 비행소년들과의 관계가 주로 학교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고, 여자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고 한다. 부모님의 무관심 속에 학교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소양을 갖추지 못했고, 기초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점점 공부는 흥미를 잃어 친구들과의 관계유지로 학교생활의 의미를 갖은 것으로 보인다.

6. 유해환경 : 중학교 때부터 폭력써클집단에 몰려다니며 어렵지 않게 술집, 오락실, 락카페, 당구장, 비디오방 등을 출입하는 등 항상 자유롭게 유해환경을 드나들며 청소년기를 보냈고, 여럿이 함께 다니다 보니 시비가 자주 일어 당연히 폭력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다고 한다.

III. 또래집단과의 관계

1. 친구관계 및 비행친구 관계 : 비행집단에 속하면서 정상적인 친구 관계는 자연히 떨어져 나가고 비행 친구들과만 지내게 되어 지금도 알고 지내는 대부분이 같이 폭력 처벌을 받은 친구들이고 (약15명 정도), 속마음을 열어 놓을 수 있는 친구는 단 1명으로서 옥상에서 부탄가스를 마시다 같이 걸린 그 친구로 여자친구 애기부터 직장상사에 대한 욕까지 모든 얘기 할 수 있다며, 예전에 이 친구가 훔친 돈으로 같이 돈을 쓰고 곤욕을 치루기도 했다고 한다. 현재 대부분의 친구는 1년 쉬고 다시 복학하였고 2에 재학중이라 한다. 친구 집에 모여 비디오 보다 부탄가스 하던 그

친구들이며, 현재는 서로의 처지가 달라 거의 못 만나고 1명만 자주 만난다.

3. 이성친구 관계 : 워낙 공부보다는 여자친구에 관심이 많아 지금껏 친구로 지내온 여자친구는 100명도 넘을 것이고, 거의 그 만남이 1달을 넘지 못했으며, 대부분 연상의 여자친구들과 사귀게 되었고 5-6명 정도는 꽤 오래 관계를 유지했다고 한다. 작년부터 4살 연상인 한 여자친구(22세, 유치원 교사)를 일년이 넘도록 관계를 유지해 가고 있는데 애인이 라고 말 할 수 있고, 그 친구가 대상자를 너무 좋아해 둘이 외박도 자주 했으며, 여행도 같이 다니기도 하며 지낸다고 한다. 이렇게 오래 한 여자를 사귀어 본 것은 처음으로, 되도록이면 군대 가기전에 결혼을 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고 있다.

4. 폭력 행동 동조집단관계 : 중학교 때 학교 일진회(본인은 “노는 집단”이라 말하고 있음)에 가입하여 남녀가 몰려다니며 놀러 다녔으며, 다른 집단과도 접촉을 하게 되고, 술 먹고 자주 싸움도 일어나게 되었다 한다. 자신의 집단이 싸움을 하게 되면 워낙 무리도 많고 과격해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었으며, 모두 피해갔다고 한다.

IV. 보호관찰 받게 된 사건의 폭력 가해 정황

1. 언제 : 97년 6월

2. 어디서 : 호프집에서 써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3. 누구와 함께 : 선배2명, 친구2명들과 어울려 있다가

4. 누구에게 : 평소 안 좋게 지내던 다른 중국집에서 일하는 애들에게

5. 어떻게 : 싸움이 붙어 발로 얼굴을 차고, 뺨을 때렸다.

6. 왜 : 상대들에게 평소에도 안 좋았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날은 “술 먹고 말로 썩으며 자신을 무시하여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대상자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으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이 올라간다고 한다.

7. 폭력당한 학생 : 평소 불량기 있는 애들로서 학교친구는 아니고, 타박상을 입고 2-3주 진단이 나왔으며,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상대의 부모가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여 합의를 포기하고 대상자가 처벌을 받기로 하였다고 한다. 지금은 소식을 모르고 지내며 아직도 그 아이들에게 크게 미안한 감정은 솔직히 없다고 한다.

8. 폭력 행사가 발각된 과정 : 일단은 겁이나 도망을 갔으나 나중에 붙잡힌 후배에게 뼈빠로 자신의 위치를 가르쳐 주어 자수를 한 셈이 되었고, 때리기는 선배가 더 많이 때렸는데 본인이 주범으로 물렸으며, 그후 피해자와는 접촉이 없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

V. 보호관찰에 대한 견해

1. 보호관찰관 : 대상자는 “관리를 하려면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며, 날짜, 시간 등의 약속을 어긴 친구들에게 항상 일정한 규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정이 안가며,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전문성에 의심이 간다며 보호관찰관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2. 범죄예방위원 : 인간적 관계가 느껴지고 마음을 편하게 자신의 의견을 얘기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좋으며, 다만 “처음 접수하던 과정이 좀 부담스러웠어요”라고 하며, 상담 선생님과 성이 달라서 좀 불편할 때가 있는데, 이성으로 느껴져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그리고 “내주시는 지면 작성 프로그램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 같아 창피 할 때가 있어 솔직하게 못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3. 치우프로그램 : “단체캠프에 참여해 본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고 좋았어요”라며 단체생활이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법도 배우고 유익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정서순화차원에서 행하는 너무 심한 육체적 운동은 고생을 강요하는 것 같아 싫은 생각이 든다고 한다. 또 다시 단체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나 캠프는 참여해 보고 싶다고 하고 있다.

4. 시설 : “한마디로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세련되지 못하겠 같아요.”라며 컴퓨터 시스템 등 현대적 환경이 되어 있지 않고, 건물이 주는 인상은 교도소, 수용소, 공장, 벌판 등으로 연상되어 거부감이 느껴졌다고 한다. 웬지 다니는 사람도 드물고 지나다니는 애들도 질 나쁜 아이들 처럼 보였다고 하며 삭막함을 표현하고 있다.

5. 기타문제 및 욕구

1) 보호관찰소의 가장 심각한 문제 5가지

부족한 홍보-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태도-보호관찰소와 지역주민들과의 거리감-보호관찰소 직원들의 교육부족-보호관찰소 분위기

2)보호관찰소의 필요한 서비스

보호관찰소의 홍보강화-다양한 집단활동 제공-신중한 보호위원의 선정-전문적인 개인상담-사회 서비스 제공

VI. 폭력실태 및 대책에 대한 견해

1. 학교폭력 : 대상자가 생각하는 학교폭력의 원인으로 자신의 경우처럼, 성격탓과 왜소한 외모로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애들이 하나의 열등감 해소의 표시로 집단의 힘을 빌려 폭력을 사용하게 경우도 많으며, 학교생활에서는 남의 약점을 들추려 하지 말고 같이 예민한 청소년시기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언행을 삼가도록 할 것을 예방책으로 생각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2. 왕따현상 : 왕따의 대상은 자신감 없는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만만하게 보이는 아이들이라며, 특히 체격적으로 왜소하거나 행동이나 사고가 느린 아이들, 혐오감을 주는 아이들이 왕따의 대상이라며, 스스로 만만한 행동으로 약점을 잡히지 않도록 주위하는 것이 왕따를 피하는 요령이라고 한다. 본인도 알게 모르게 왕따를 준 것 같고, 자신 또한 성격과 외모탓에 왕따를 당할 뻔 했으나 만만치 않음을 보임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3. 폭력대책 : 주위사람과 선생님들이 좀 더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주면 미안해서라도 오기를 죽이고 폭력적 대응을 삼가 할 것이므로,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적 존중과 믿음으로 폭력성향을 가진 아이를 대한다면 폭력은 훨씬 줄어 들 것이라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4. 욕구 : 대상자 자신은 이제 마음붙여 6개월째 다니는 직장에서 좋은 기술을 익혀 사회일원으로서 한 몫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고, 돈을 벌어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루면 폭력을 사용할 마음이 없을 것 같으며, 사회에게 바라는 것은 짧은 직장생활에서 보았듯이 사회에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지나친 경쟁의식으로 남을 밟아야 올라 설 수 있다는 분위기가 사라져야 폭력이 사라질 것 같으며, 학교에서도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폭력이 사라진다고 하였다.